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두 영

2020년 8월

- i -

제주지역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고 관 우

김 두 영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김두영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0년 08월

Satisfaction level of use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in Jeju
Impact on life satisfaction
– Focus 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

Doo-Young Kim
(Supervised by professor Kwan-Woo K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20.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문제	6
II. 이론적 배경	7
1. 노인의 정의 및 이해	7
1) 노인의 정의	7
2) 노인인구의 현황	8
2. 노인복지와 노인복지관	13
1) 노인복지의 정의	13
2) 노인복지관의 개념	18
3. 사회적 지지	23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23
2) 사회적 지지의 유형	24
3) 노인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25
4. 노인 삶의 만족도	26
5. 선행연구 고찰	29
1) 노인복지관과 노인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29
2) 노인복지관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30
3) 사회적 지지와 노인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31
III. 연구 방법	32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2
2. 연구모형	33

3. 연구가설	34
4. 조사도구	35
1)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측정도구	36
2)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	38
3)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	39
4) 인구 사회학적 특성	41
5. 자료분석 방법	41
IV. 연구 결과	42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2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45
1)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수준	45
2) 사회적 지지 수준	45
3) 삶의 만족도 수준	46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집단 간 차이 분석	47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차이 분석	47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 분석	56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66
4.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76
5. 연구가설 검증	78
1)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8
2)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79
3) 사회적 지지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80
6. 매개효과 검증	81
V. 결론	85
1. 연구의 요약	85
2. 연구의 제언	88

참고문헌	90
ABSTRACT	97
부록(설문지)	100

〈표 목차〉

〈표 1-1〉 인구추이	8
〈표 2-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5
〈표 2-2〉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16
〈표 2-3〉 제주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17
〈표 3-1〉 노인복지관 사업구분	20
〈표 3-2〉 전국노인복지관 현황	22
〈표 4-1〉 설문문항 구성	35
〈표 4-2〉 노인복지관 만족도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	37
〈표 4-3〉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	38
〈표 4-4〉 노인의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40
〈표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4
〈표 5-2〉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수준	45
〈표 5-3〉 사회적 지지 수준	46
〈표 5-4〉 삶의 만족도 수준	46
〈표 5-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환경 차이 분석	49
〈표 5-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내용 차이 분석	51
〈표 5-7〉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응성 차이 분석	53
〈표 5-8〉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차이 분석	55
〈표 5-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지지 차이 분석	57
〈표 5-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보적 지지 차이 분석	59
〈표 5-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구적 지지 차이 분석	61
〈표 5-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활동 지지 차이 분석	63
〈표 5-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 분석	65
〈표 5-1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67
〈표 5-1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성취감 차이 분석	69
〈표 5-1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에 대한 태도 차이 분석	71

〈표 5-17〉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실 만족감 차이 분석	73
〈표 5-1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75
〈표 5-19〉 상관관계 분석	77
〈표 5-20〉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8
〈표 5-21〉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79
〈표 5-22〉 사회적 지지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80
〈표 5-23〉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의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83
〈표 5-24〉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84

[그림 목차]

[그림 1-1] 인구피라미드	9
[그림 1-2] 고령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10
[그림 1-3] 성별 고령인구 구성비 및 성비	10
[그림 1-4]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변화	11
[그림 2-1] 연구모형	33
[그림 3-1] 매개효과	84

국문초록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김 두 영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고 관 우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용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2020년 4월23일 부터 5월 12일까지 20일 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총 28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결측치가 많은 설문지 15부를 제외하고 265부의 설문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Win 23.0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 분석, 기술통계,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최종학력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집단 간 차이에서는 경제활동, 건강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건강하신 노인이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에도 많은 만족감을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바,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하위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삶의 만족도 하위요인이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전체)와 사회적 지지(전체)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노인 복지관 이용만족도(전체)와 삶의 만족도(전체)는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전체)와 삶의 만족도(전체)는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각 변수 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복지관 이용만족도의 서비스 환경과 서비스 내용이 사회적 지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환경과 내용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사회활동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도구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활동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 2단계에서는 복지관 이용만족도는 사회적 지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3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어도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는 1단계에서 복지관 이용만족도 보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매개 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었을 때 복지관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하여 사회적 지지가 복지관 이용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지원방안이 되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 대한 측정도구의 개발을 제언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 대한 방안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 삶의 만족도, 사회적지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구 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년 생활이 길어짐을 의미한다. 고령화의 단계는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선 사회를 말하며 고령사회는 14%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할 경우에 정의된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14.9%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5년 20.3%의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로 인한, 초 고령 사회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통계청, 2019). 프랑스의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는데 115년, 미국은 72년, 일본은 24년이 걸렸지만 고령사회에서 초 고령 사회로 변화되는 시기가 프랑스는 40년, 미국은 16년, 일본은 12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노인문제에 관련하여 대비하였지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0년 이내에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인과 사회가 노인인구의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제주연구원, 2017). 노인문제에 따른 사회비용도 매우 증가하고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노년부양비가 201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6.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18년에는 5.1명, 2030년에는 2.6명, 2050년에는 1.3명으로 노인부양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문제가 야기될 상황이다(통계청, 2019).

우리나라 노인들은 건강한 신체와 인지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나, 사회적인 정년 및 자녀의 양육과 사회적 자립에는 취약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이 되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기능의 감소, 경제적 소득 수준 감소, 부양능력 문제, 역할 상실 등 다양한 문제가 진행되어 고령화 사회에서는 가족, 지역사회의 문제로서 한정되어 왔으나, 현재의 초 고령 사회에서는 국가적인 문제로 전환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노인복지 정책은 경제와 사회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에 고착되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재정투입 이외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노인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으로는 연금제도, 장기요양보험, 공공부조, 보건의료 등으로 지출되며, 이는 OECD 국가들도 가장 비중이 큰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 관련 노동시장 지출보다는 전통적인 사회 부양 정책에 그치고 있어, 한국사회는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최영준, 2011). 이는 기존의 생존과 관련된 욕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나, 현재의 노인복지 정책은 부양과 의무를 강요하며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최저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사회에서 노인은 길어진 노후를 위해 경제, 건강, 여가활동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으로 노인복지관을 통하여,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지원을 통해, 노인들에 삶의 만족을 긍정적인 영향으로 향상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노인들은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생활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여가생활의 질을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노후 생활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향숙, 2015). 노인들이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며,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가장 적합한 방안이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여가활동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노인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단순한 취미, 여가생활의 제공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또래집단의 관계 형성, 정보제공, 가족관계 기능 회복 등의 사회적 지지와,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들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행복감을 찾고, 삶의 만족도의 향상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최정민, 2009).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사회적 지지 형성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고 하겠다.

물론, 노인복지관을 통하여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또는 생활만족도가 향상된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결과는 여러 연구를 통하여 드러났다(김호걸, 2016).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과거에는 점차적으로 심리적인 단일차원으로서, 노인의 행복감, 삶의 만족감을 연구하다가 점차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노인들의 상대적인 삶의 만족을 비교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발전되고 있다(장명숙 외, 2012).

한국인의 행복과 행복 요인 보고서 시기별 행복 분류에 따르면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현재 평균보다 불행하며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음에 응답자는 2,000명 중 400명 이상으로 조사되면서 20.2%가 행복하지 않다고 하였다(이용수, 2018). 유엔(UN)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도 157개국 중 57위(행복 지수는 5.875)로 조사되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중 32위다. 그러나 2017년 기준 국내 총생산량(GNP) 기준 12위로 경제발전과 대비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대수명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이다(중앙일보, 2019).

2000년 이후부터는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인 움직임이 활발히 시작되었고, 웰빙(well-being)은 신체적인 건강 이외에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뜻하는 용어로 현재는 웰니스(wellness: well-being + fitness + happiness)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한국어 대사전, 2020). 이는, 단지 경제력과 사회적 명예에 초점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중요한 시대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삶의 만족과 주관적인 만족 상태를 포함하면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여가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상기, 2018).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연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종교,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및 경제 요인과 직업,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 참여,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생활만족도 등의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그중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박영미, 2014). 노년기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능력 등 전반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시기로서, 심리적인 문제 등이 노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위험 요소로 차지하고 있으나, 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삶에 대한 자신감 부여를 통하여 자아실현 및 자아통합으로 성공적인 노년기의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하향자, 2018). 사회적 지지는 초기에는 정서적 지지만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다양하고, 다기능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안성문, 2016).

송인옥(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 노인들의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변화 및 건강상의 변화, 배우자나 가까운 이의 상실과, 사회·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있어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이라 하였다(홍인애, 2013). 이는 노인들의 삶의 있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노년기의 상실감을 줄이며, 사회적 지지가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이선재, 2015).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은 생산적인 복지 대응체계와 확충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과 자아성취를 위한 사회적 통합의 문제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송한이, 2009). 특히 서화정(2005)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미비하면, 노인의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그들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노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각인시켜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삶에 만족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지지가 현대사회의 노년기의 삶에 있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은 노년기의 여가활동, 사회활동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영위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향상됨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주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년기의 수반되는 신체적 능력의 저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과 경제능력 상실 등의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사회활동의 지지를 통하여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욕구 충족을 반영하고,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균형적인 서비스를 노인복지관에서 실행할 수 있다(김양이 외, 2017). 노인들은 복지관 이용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과 사회적 지지가 더욱더 강화된다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은 38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1개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기에 전국단위의 범위로 조사를 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관 이용 만족도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노인 삶의 만족도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의 문제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이용자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복지관 이용만족도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또한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용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의 차이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이용만족도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4] 사회적 지지는 이용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정의 및 이해

1) 노인의 정의

노인(老人)은 사전적인 단어로 평균 수명에 이르렀거나, 그 이상을 사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마지막 과정(end of human life cycle)이라 할 수 있다. 어르신이라 말하기도 하며, 그 외에도 고령자(高齡者), 시니어, 실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다(위키백과, 2020). Havighurst(1973)는 노인은 일을 수행해 나가는 역할보다는 사회적 역할에 적합한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노인의 개념은 국가와 시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는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고,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어 뚜렷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신체적, 성격, 사회적 특성으로 노인의 정의를 접근해 볼 수 있다(서정조, 2006).

Breen, L.(1976)은 노인을 ①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②심리적인 면에서 성격이나 정신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③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장인협 외, 1997).

Breen, L.(1976)이 정의한 노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생리적 및 생물학적 노인은 신체적 노화를 말한다. 체중과 신장이 감소되고, 근육량이 약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체온조절 능력 저하, 운동능력 저하를 포함한 면역능력의 변화를 포함한다. 두 번째로, 심리적 노화는 인지기능, 정서 상태, 성격, 행동상의 퇴행, 유지, 성숙을 동시에 포함하는 심리적 조절 과정으로 보고 있다(Atchley, 2000). 마지막으로 사회학적 노화를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으며, 이는 가족관계, 지위와 역할 상실 등 사회구조 내에서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조성희 외, 2017).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감퇴와 더불어 개인의 가족유지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65세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조(1981)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또한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전후해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이용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지침을 정하여,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였다.

2) 노인인구의 현황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표 1-1> 을 살펴보면 이미 2019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9%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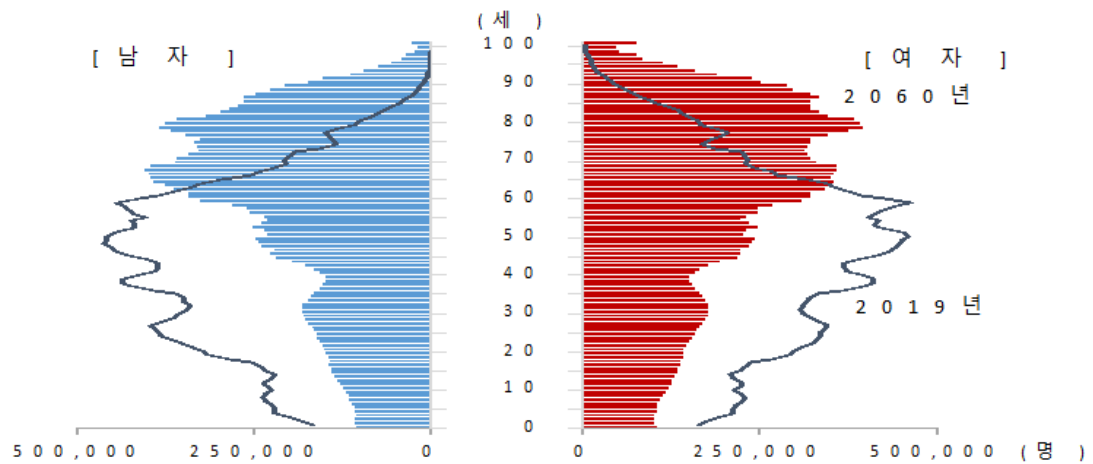
<표 1-1> 인구 추이

(단위: 천명, %)

	총인구	연령대별 인구 및 구성비							
		65세 이상	구성비	65~69세	구성비	70~74세	구성비	75세 이상	구성비
2000	46,136	3,375	7.3	1,377	40.8	919	27.2	1,078	32.0
2005	47,279	4,372	9.2	1,683	38.5	1,255	28.7	1,434	32.8
2010	48,580	5,434	11.2	1,817	33.4	1,569	28.9	2,049	37.7
2017	51,423	7,171	13.9	2,315	32.3	1,756	24.5	3,100	43.2
2018	51,630	7,455	14.4	2,372	31.8	1,829	24.5	3,254	43.6
2019	51,709	7,685	14.9	2,450	31.9	1,888	24.6	3,346	43.5
2020	51,781	8,125	15.7	2,660	32.7	1,991	24.5	3,475	42.8
2030	51,927	12,980	25.0	4,094	31.5	3,566	27.5	5,319	41.0
2040	50,855	17,224	33.9	4,284	24.9	4,074	23.7	8,866	51.5
2050	47,745	19,007	39.8	3,848	20.2	3,744	19.7	11,415	60.1
2060	42,838	18,815	43.9	3,698	19.7	3,278	17.4	11,838	62.9

자료: 고령자 통계, 통계청(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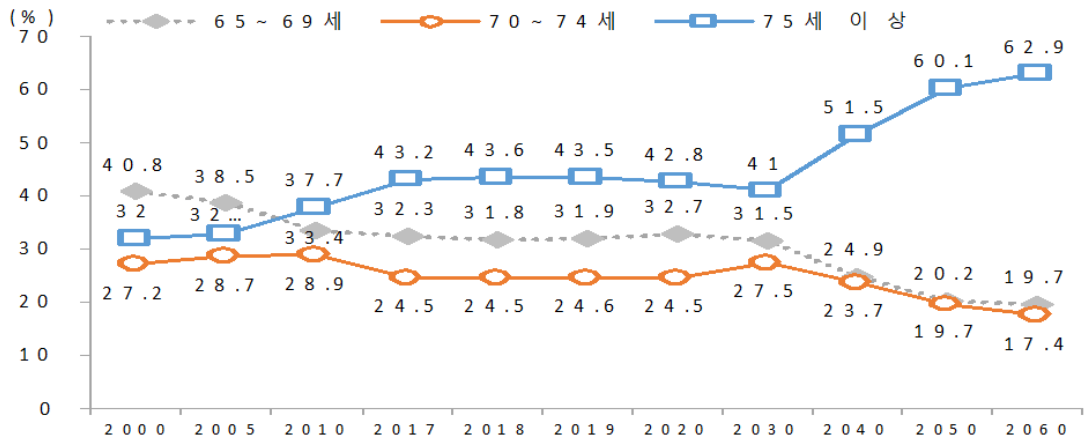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2019년 전체 인구는 5,170만 9천 명으로 2028년 계속 증가 후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768만 5천 명으로 2050년 1,900만 7천 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노동시장 및 취업구조의 고령화,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 생산성 감소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 고령자 통계, 통계청(2019).

[그림 1-1] 인구 피라미드

[그림 1-1] 인구피라미드를 살펴보면, 2019년 인구 피라미드는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 형태이며, 2060년에는 초 고령화로 인하여, 60대 이상이 두터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구 구조적으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이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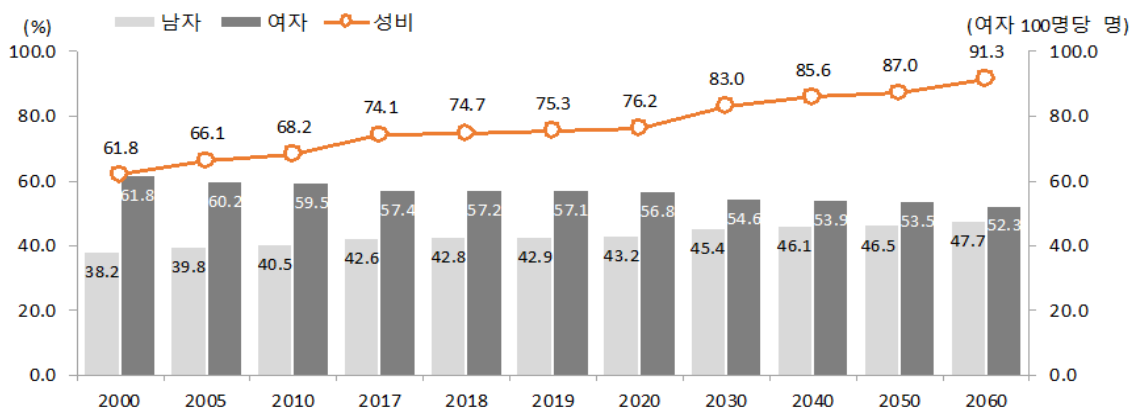


자료: 고령자 통계, 통계청(2019).

[그림 1-2] 고령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그림 1-2] 고령자의 연령 대비 구성비를 살펴보면, 연령별 구성비는, 65세 이상 인구 중 65~69세와 70~74세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2019년 증가하다 감소하는 반면 75세 이상의 구성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 고령인구 구성비 및 성비를 살펴보면, [그림 1-3] 과 같다.



자료: 고령자 통계, 통계청(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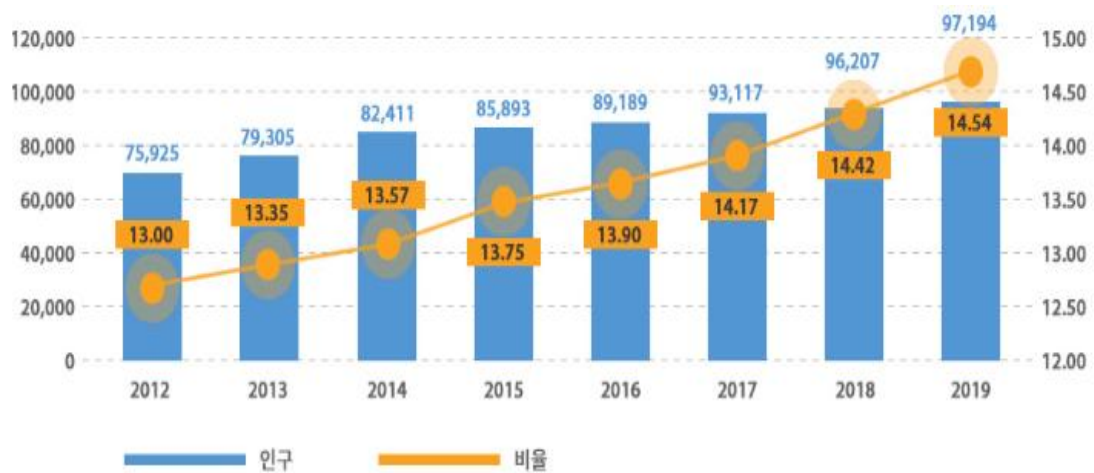
[그림 1-3] 성별 고령인구 구성비 및 성비

[그림 1-3] 살펴보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는 75.3명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91.3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여자의 비중은 57.1%로 남자 42.9%보다 14.2% 많지만, 지속적으로 여자 비중은 감소하고 남자 비중은 증가하여 2060년에는 그 차이가 4.6%로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지역으로 살펴보면, 옛 부터 제주는 전통적으로 장수 사회이다. 고전에 사례로 중국의 황제 진시황이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 자신의 신하인 서복을 제주도로 보냈다는 일화는 지금도 제주에서 “서복 전시관”을 운영하며, 현대 제주도민에게도 그 이야기는 전해져 오고 있다.

제주의 어르신은 고령이 되어서도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독립적 생활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승환 외, 2010). 이는 제주의 삼무정신과 수눌음 정신, 조냥 정신의 공동체 의식으로 제주인의 강인한 생활력을 반영하는 제주도의 독특한 사회적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제주의 실제 인구 분포에서도 제주가 장수지역임을 쉽게 알 수 있다(송재홍, 2004). 우리나라는 2019년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으며,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반면 제주는 이미 2014년 9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66만명)의 14.5%를 차지하며,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였다.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2019).

[그림 1-4]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변화

제주지역의 노인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속도가 매우 빨라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20%가 노인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2027년 65세 인구 비율이 20.1%로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한 뒤 2039년에 30.7%로 30%대에 들어서고, 2045년엔 34.9%로 도민 3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 노인복지와 노인복지관

1) 노인복지의 정의

노인복지(老人福祉)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의 조직적 제반 활동을 말한다(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2020). 노인복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융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인 것이다(김병오, 2008). 권중돈(2010)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well-being)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로 노인복지를 설명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과 그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신체, 심리, 사회적 측면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실천되고 있다(최성재 외, 2010).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 자아발달을 위한 욕구 충족, 그리고 일상생활의 당면문제 해결 등을 위한 비화폐적 서비스를 통칭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한다. 노인이 갖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서비스의 총칭을 노인복지서비스라 하겠다. 노인복지서비스 내용으로는 정보제공과 정보 의뢰, 교통예방, 범죄예방, 법률 및 재가서비스, 시설 서비스 등으로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할 목적이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3대 범주 중 하나이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물질적 보장을 주된 성격이라면, 노인복지서비스는 비물질적 보장의 성격이 강한 개별적,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한다(맹두열, 2011).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되었다(신승만, 2012). 노인복지 정책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정책의 발전과정은 해방 후에서 1950년까지의 보호가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구호 사업기’와 60년대의 노인 구호에서 노인복지로의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를 거쳐, 70-80년대에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의 초기 단계를 거친 전환과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1981년은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중요한 시기로, ‘노인’이 사회복지 분야의 독자적인 서비스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이 시기에 관련법이 제정된 것을 기반으로 기존에 다양한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노인복지 정책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체계화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인구 고령화가 중앙정부의 정책 아젠다로 급부상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관련한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3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노인인구의 양적 증대 및 복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고 세밀한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과 정책 간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노인복지전달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급여(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지속성 보장, 노인의 문화 및 여가 지원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안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적극적 조치, 이용 시설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수준 및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주거, 의료, 여가 등 노년기 생활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사회적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임으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은 노인복지 제공의 기본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제주연구원, 2018). 따라서 노인문제의 해결 및 노인의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 <표 2-1> 과 같다.

〈표 2-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의 종류 (서비스 명칭)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자료: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2019).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거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도에 73,774개소, 2015년도에 75,029개소, 2016년도 75,708개소, 2017년도 76,371개소, 2018년도 77,382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9). 노인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포괄적인 욕구가 개인별로는 해결하기가 곤란함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시설 간에 서비스가 연계, 통합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김재희, 2012).

〈표 2-2〉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종류	시설	2018	2017	2016	2015	2014
	소계	68,013	67,324	66,787	66,292	65,665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385	364	350	347	344
	경로당	66,286	65,604	65,044	64,568	63,960
	노인교실	1,342	1,356	1,393	1,377	1,361

자료: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2019).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그 밖에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주지역으로 살펴보면, 제주지역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10년 이내에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노인 여가 시설 수는 이런 흐름을 따라 가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노인 교실 등 여가활동과 학습 프로그램 등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제주도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60세 이상 노인 1,000명 당 3.3개소로 10년 전보다 1.1개소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전국 평균 감소율 3.2%와 비교해도 제주지역 감소율은 5.7%로 다소 높은 상황이다.

〈표 2-3〉 제주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인원(명)/시설 수(개)

시도	60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노인 천명당 여가복지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시설	종사자		
전국	11,193,257	6.1	68,013	385	7,051	66,286	1,342
제주	138,552	3.3	458	2	21	438	18

자료: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2019).

제주지역에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427개소, 노인 교실 27개소로 총 456개소가 있다.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대비 시설 수의 비율은 0.51%로, 전국 0.9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제주연구원, 2018).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년기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시기를 보다 의미 있고 생산적인 시기의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노인의 삶의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에 반해 제주도의 노인인구에 턱없이 부족한 노인여가시설의 현황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2) 노인복지관의 개념

노인복지관(老人福祉館)은 한국어사전에 의하면 『고령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명명되어 있다. 주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며, 직업상담, 건강진료, 취미여가활동 지원, 봉사활동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다음어학사전, 2020). 노인복지법(제36조)에서는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기도 한다.

노인복지관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1982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근거가 마련 이후 1989년 노인복지법 1차 개정 시 노인여가시설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었으며 노인복지관이 오늘날과 같은 운영 기준을 갖게 된 것은 2004년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이 마련되고, 노인복지관의 기능이 처음으로 규정됨에 따른 것이고,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과정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9년 5월 시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시작된 시립 노원(구 중부)노인종합복지관과 시립 관악(구 남부) 노인종합복지관은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재가복지사업을 운영하였고, 이후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개설(1992.10), 치매주간보호소 개설(1992.12), 가정봉사원 위탁교육 실시(1995.9), 치매 단기보호사업 시작(1996년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중풍 주간보호소 개설(1998.10, 노원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사업(2000년 노원, 관악)을 하게 되면서 노인종합복지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최초로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을 마련하였고, 13개의 노인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연혁을 살펴보면,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동법 제13조에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으로 노인복지회관 규정), 1982년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노인복지회관의 운영근거 제시), 1989년 노인복지법 1차 개정, 노인여가시설 개념 도입, 1997년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 2000년에 들어서서 노인복지관 내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실시되었다. 2001년에는 한국노

인종합복지관협회가 설립 허가를 받았다. 2005년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분권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2007년에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하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다. 2013년도에 노인복지관에서의 운영방향을 단순한 여가 개념에서 예방, 보호, 통합이라는 3대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을 하였다(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020).

현재 정부는 시·군·구별로 노인인구수와 지역 면적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최소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 및 운영하여 노인들의 여가 복지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최인숙, 2019).

노인복지관의 기능은 과거에는 단순 여가시설에 국한되었던 시설에서 최근에는 노인 스스로가 가정이나 지역,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의존적 존재로부터 탈피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등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현숙, 2003).

첫째,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박태룡, 1999).

둘째, 노인의 신체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생활 편의를 제공한다. 셋째, 노인들에게 각종 상담을 제공하고 노인문제를 해결한다. 넷째, 노인의 가족기능을 회복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강봉주, 2013).

이로 인해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28조에 노인복지관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교육, 여가 전문상담, 돌봄, 사회참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노인복지관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한 지역사회 복지 체계에서 어르신과 관련된 가장 적절한 Gate Way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장 큰 조건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라고 한다면,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곳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015).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노인인구의 증가와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지역 노인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노인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

구를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이송현, 2014).

노인복지관의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표 3-1> 과 같다.

<표 3-1> 노인복지관 사업구분

사업구분	프로그램(예시)
상담 및 정보제공	노인의 일반상담(이용상담, 접수상담), 전문상담(경제, 법률, 주택 상담, 연금상담, 건강상담, 세무상담), 심리상담, 치매상담, 노인 학대상담 등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우울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위기 및 독거노인지원	취약노인의 신체, 정서, 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거 노인돌봄서비스, 사례관리사업,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취약노인 연계망 구축사업)
사례관리	
가족기능지원	가정봉사원 파견,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
건강증진지원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독거 노인지원사업(기존 재가사업), 이·미용, 노인건강운동, 치매예방 인지 활동서비스, 물리치료 등
건강생활 지원	
기능회복지원	양·한방진료, 작업요법, 운동요법, ADL훈련 등
급식지원	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밑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

노년 사회화 교육	평생교육지원	노인역량강화교육, 정보화교육, 사회화교육, 시민사회교육, 한글 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인문학교육, 예비노인 은퇴준비 프로그램 등
	취미여가지원	예능활동(음악, 미술, 생활도예, 서예, 댄스), 문화활동(연극, 사진, 영화, 바둑, 장기, 레크리에이션), 취미활동(종이접기, 손뜨개질, 민속놀이), 체육활동(탁구, 당구, 게이트볼), 동아리활동 등
지역 조직 및 세대통 합	지역자원개발	자원봉사자 발굴·관리, 후원자 개발, 외부 재정지원기관 사업 수탁 등
	지역복지연계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 등의 지역복지기관 연계, 지역협력사업 (경로행사, 나들이 등) 등
	주거지원	주택수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등), 등
	가족통합지원	가족상담, 가족관계프로그램, 가족캠프, 세대통합프로그램 등
사회참 여 및 권익증 진	사회참여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역봉사활동, 교통안전봉사, 동아리·클럽 활동 지원, 교통편의 서비스 등
	노인권익증진	정책건의, 노인인권 옹호, 노인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 설치, 노인 소비자피해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등
	고용 및 소득지원	고령자취업지원 사업, 경제교육, 취업교육 등
돌봄	요양서비스	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자료: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2019).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지역 노인들의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종합적 복지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송한이, 2009).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 와 같다.

〈표 3-2〉 전국노인복지관 현황

총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82	59	20	31	19	9	7	13	1
385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18	16	22	29	19	23	15	2	

자료: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2019).

노인복지관에서는 고령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인들이 보다 더 활기차고 독립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최우영, 2015). 특히 우리나라에서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노인복지 시설이라는 점에서 점점 노인복지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이윤정, 2012). 노인들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물질적,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한 지지와 개입을 통해 길어진 노년기에 적합한 사회참여와 긍정적 삶을 도모하는 활동적이고 성공적인 노화를 도모하고 있다(조영주, 2015). 또한,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며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노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상구 외, 2006).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욕구 충족을 넘어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균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양이 외, 2017).

3. 사회적 지지

1) 사회적 지지(社會的支持)의 개념

인간은 개인 스스로만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는 서로 피드백(feedback)을 주고받으며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社會的支持)라 함은 어떤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타인에게서 얻는 여러 가지 형태의 원조라 한다(다음 한국어백과 사전, 2020). 사회적 지지는 1970년대부터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스트레스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사회·심리적 환경의 주된 변인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강은경, 2013). 사회적 지지를 정의함에 있어서 Cohen and Hoberman(1983)은, 넓은 의미에서 본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말하고 있으며, 심정원(2002)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고, 적절한 중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였다(국현정, 2018). 미국사업가협회(NASW)에서는 인간이 사회에서 살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식, 비공식적인 활동과 관계로 정의하기도 하였다(장은희, 2017). 이렇듯, 사회적 지지는 많은 연구자의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과 삶의 만족을 연구한 경험적 분석 결과 주위에 소통할 사람이 많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많은 경우에 삶의 만족이 높다고 하였다(이혜경, 2018).

사회적 지지를 종합적으로 정의해보면, 모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물질적, 정보적 제공을 통해 긍정적인 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박정민, 2014).

2) 사회적 지지(社會的支持)의 유형

사회적 지지는 주체에 따라 공식 사회적 지지(formal social support)와 사적 사회적 지지(informal social support)로 구분할 수 있다(안성문, 2016).

공식 사회적 지지는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라 할 수 있는데, 정부나 민간 차원의 기관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 사적 사회적 지지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라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친구, 이웃 등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유영희, 2019). 이처럼,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esler and Meleod(1985)는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기능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되고 있다고 하였다(안선영, 2016).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실제로 제공하는 자원을 의미하며, 제공하는 자원의 특성에 따라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등이 있다. 샌들러(Sandleretal.,1989)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유형적 지지 그리고 정보적 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종경, 2012).

정서적 지지는 감정, 관심, 친밀감, 사랑, 신뢰 등의 지지를 말하며, 도구적 지지는 물질적인 도움, 경제적, 시간, 노동 등의 지지를 의미한다. 정보적 지지는 정보제공, 충고, 제안, 지도 등의 지지가 있다. 그 외에 평가적 지지로서 수용, 긍정적 자기 평가, 확신, 피드백 제공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타인과의 교류 등의 사회활동을 말할 수 있다(도용호, 2010).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유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으로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있고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의 지지라 정의할 수 있다(섭아남, 2019). 또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제공의 지지 체계임으로, 다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유수상, 2007). 개인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과정 및 사회적 욕구를 충족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 노인과 사회적 지지(社會的支持)의 관계

사회적 지지는 모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물질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박정민, 2014).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 노후에 대한 대비는 미흡하다. 가족 구성도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노인 소외 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의 신체적 기능의 감소와 소득 수준의 감소, 역할의 상실 등의 노인문제는 사회문제로서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강성재, 2019). 그 결과 노인의 삶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노년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가족 기능의 약화와 함께 사회적 지지망의 결속력도 약화되고, 노년기에는 고독감과 우울감이 함께 유발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다. 또한, 노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를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노인의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걱정과 고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스트레스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로써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해결하며, 삶의 전환에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노년기의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김계옥 외, 2016).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도 의하면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삶의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Murrell(1992)은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스트레스와 증상을 예방하고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며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였고, 강기은(2014)은 노인의 사회적지지 유형에 따라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인애(2013)는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축소된 사회관계망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교제 및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자 사회적 후원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라 하였다.

Norris and Murrell(1984)는 사회적 지지는 노인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개인적 상태에 따른 고독감을 조절하여 사회에서 이행되는 원만한 관계를 수립하고 나아가 개인

의 생활 만족감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정서적 지지를 통하여 노인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여가활동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 지원 등 사회적인 사회 지지와 경제적 도움 등 필요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구적 지지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한정화, 2010).

4. 노인 삶의 만족도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안녕(well-being), 복지(welfare)와 같은 유사 개념으로도 쓰이고 있으며, 이는 삶의 만족도가 포함하는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강은경, 2013). Diener(1984)는 삶의 만족도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의식적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만족의 정도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세계 보건기구(WHO, 1993)에서는 삶의 질을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나 가치체계 하에서 목표와 희망, 기준, 그리고 관심사들과 관련하여 삶에 있어서 그들의 위치에 대한 인지라고 정의하였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함에 있어 가치 있고 성공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의 향상이 있을 때 삶의 만족도라 할 수 있다. 삶의 만족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기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개념이며,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개념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여러 차원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다(권미경, 2017).

삶의 질은 시대와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경제, 문화, 정치, 사회의 발전 수준과 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관습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인 것이다(전영숙, 2007).

노인의 삶의 질과 삶의 만족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연구과제이다.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노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꾀하고, 노인문제를 예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이국권, 2010).

권오균과 허준수(2010)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삶의 보람, 행복감, 심리적 복지, 성취감 및 긍정적 가치가 혼합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의미한다(홍경민, 2010). 이는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 간의 사이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나 행복한 느낌으로 정의되고 있다. 생활만족도가 궁극적으로는 노인 자신의 일생에 관한 행복도 및 생의 목표 달성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정도는 한 개인의 삶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유송자, 2004).

김은경(2002)에 의하면, 노인의 삶의 만족이란 결국 생활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여건뿐 아니라 생활의 역사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이다(김예주, 2019).

남기민 등(2002)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 만족도란 노인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함에 있어 가치 있고, 성공적인 것이었노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심리적 안정감이나 주관적 복지 상태를 나타내 주는 일종의 감정 상태이다

노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여가활동 등의 영향을 받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노인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주변 환경과 사회변화에 잘 적응하여 신체적·심리적·사회적·여가활동적인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김호걸, 2016). 노인은 삶의 특성상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기능의 저하, 은퇴 등 많은 부분에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노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이현주, 2019).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한 개인이 노화되어 가는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감정상태이다. ‘노인생활 만족’이란 ‘행복감’과 같은 개념 군에 속하고 좀 더 종합적인 개념으로써 보편적으로 상용되는 ‘성공적인 노화’로 볼 수 있다(송재희, 2005).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종교,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과 주거 요인, 여가활동 정도, 사회활동의 참여, 사회적 지지의 요인이 있으며,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생활만족도등의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배숙경, 2002).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노년기의 삶을 향상할 수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은 노년기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개인의 욕구 충족, 가족 구성원 간 관계에서의 경험, 그들을 둘러싼 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

며, 다양한 요인들을 해결해야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형희(2017)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활동이 활발할 때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활동과 생활만족도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고 하였다. 조운주(2007)는 자원봉사 활동과 생산적 활동을 하는 유임금 노인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하였다.

오늘날 노인들은 과거의 노인보다는 집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이용 등 여가활동을 통하여 노후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노인의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가장 적합한 방안이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심신 등의 장애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 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치료나 교육·여가생활 등 노인들의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정한채, 2012).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준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김호걸, 2016).

오늘날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을 하며, 더불어 심리적인 독립 또한 이루려고 한다. 이러한 요인은 노년기 학습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며, 노년기 역할의 재정립과 노년기의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의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한정란, 2015).

오늘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은 많은 전문가나, 사회에서의 문제로 증가하게 되었으나,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다양한 측면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선행연구 고찰

노인복지관과 노인 삶의 만족도, 노인복지관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노인 삶의 만족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1) 노인복지관과 노인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박경희(2006)는 성공적 노후의 중요 요인으로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요인이 노인 개인의 활동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현세대 노인들에게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하였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지속적 참여가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인수, 2005). 노년기 교육 참여자 집단과 비 참여 집단을 분석한 결과 노년기 교육에 참여 집단의 어르신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 참여 집단의 어르신들보다 더 높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생활만족도도 높아진다고 하였다(김용숙, 2013). 또한, 송재희(2005)는 삶의 행복감과 복지관의 이용기간과의 관련성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이용기간이 1년 미만에서는 삶이 '그저 그렇다'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다소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써 복지관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장철(2012)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여 여가프로그램을 영위하며, 신체적 활동 등을 통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허영주(2016)도 노인 평생교육 참여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보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가정의 노인들의 일상수행능력이 및 도구적 일상수행능력이 취약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노인들의 노인복지시설은 삶의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이지연, 2003). 강성재(2019)는 복지관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응답자 중 195명(72.8%)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에게 건의하겠다’ 268명(93.1%)으로 나타났다. 이용 후의 긍정적인 변화도 219명(75.0%)으로의 결과로 노인복지관이 노인여가 생활에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들의 복지관에서의 만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2) 노인복지관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김재희(2013)는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 그중에서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와 사회활동 지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통합도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곽운길(2010)은 복지관에서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참여로 사회적 관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변화, 심리적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노인들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여가 동반자들과의 사회적 지지가 향상되고, 사회적 지지의 과정을 통하여 교육적인 경험 또한 습득하게 되는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최갑현, 2015). 노인복지관에서의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여가활동 만족이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회적 지지와 여가활동 만족의 관계를 살펴본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였다(백혜영, 2012). 또한 노인의 성공적 노화관계와 자기 효능감의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조절 효과의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노인복지관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사회적 지지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최순옥, 2019).

문용, 윤정옥과 주성택(2011)은 노인들은 노인복지관에서의 사회적 지지 및 사회 네트워킹에 대한 인지 수준이 향상되어 노인들의 주관적 안녕이 향상되며, 이와 관련 선 순환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하였다.

3) 사회적 지지와 노인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이현주(2019)는 사회적 지지는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의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 이웃 등과의 노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질 또는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주, 2007). 또한 인간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정서적, 애정적, 도구적, 정보적, 평가적 도움 등을 사회적 지지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손자영, 2010). 노인들의 심리적 불안과 우울의 증가에 비해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와 가족부양 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심리적 적응에 더욱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손덕순, 2006).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송연수(2002)는 노인의 스트레스와 증상을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예방할 수 있고,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며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였다. 송기영(2019)도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관계가 있으며,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은 노년에 경제적, 사회적 자립의 지원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강영숙 외, 2020). 김정엽(2010)은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서도 가족 지지와 그 외 기타적인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노인들이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고, 노년기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등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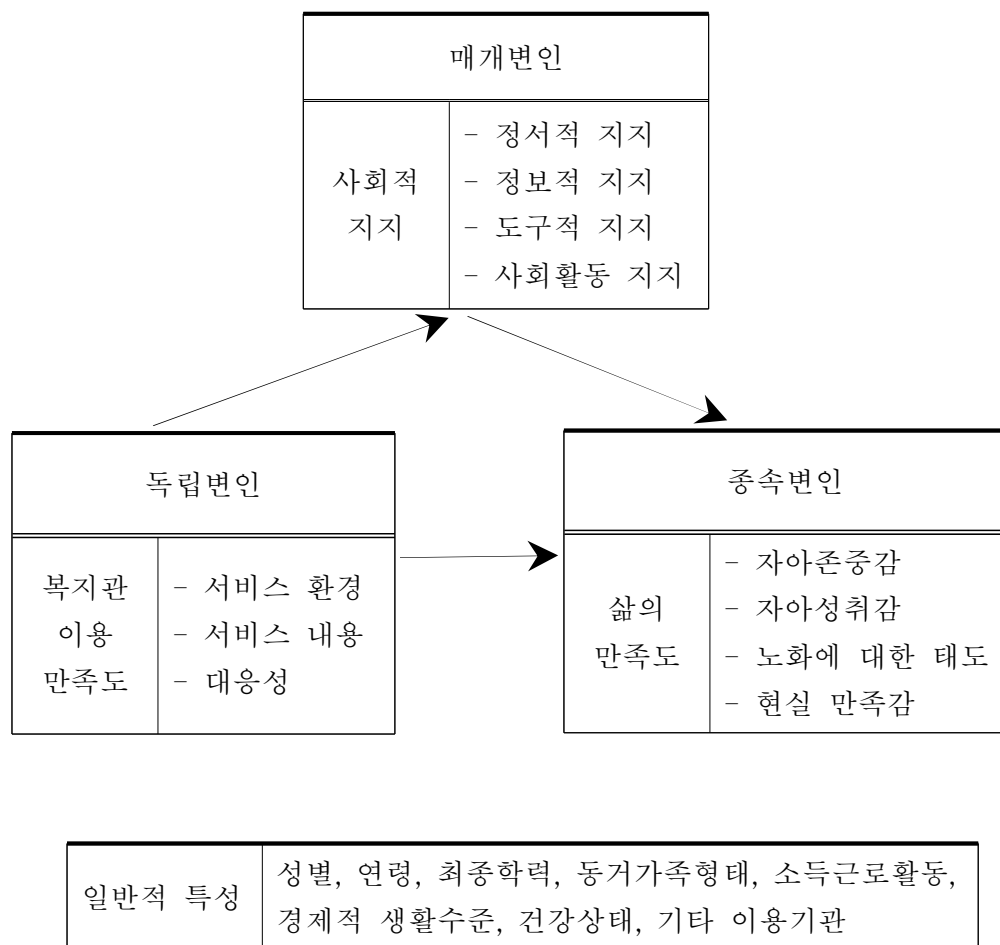
본 연구는 독립변인(복지관 이용 만족도)과 종속변인(노인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와 그 사이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연구가설을 설계하고, 가설 검증에 사용할 주요 변인들을 측정할 측정도구의 설계 내용을 설명하였다.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 총 280명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의 기간 동안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지역은 제주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이용자로 실시하였으며,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복지관 이용이 중단되어, 복지관으로 어르신이 오시지 못하는 상황이라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하였으나, 응답 내용이 부실하거나, 결측치가 많아 신뢰성이 결여된 15부를 제외 하고 총 265부의 설문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와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그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2-1] 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2-1] 연구 모형

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선행연구 바탕 및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용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의 차이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가설 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용 만족도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2.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가설 2-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삶의 만족도는 이용만족도의 하위요인(서비스 환경, 서비스 내용, 대응성)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3. 이용만족도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가설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2. 이용만족도의 하위요인(서비스 환경, 서비스 내용, 대응성)이 사회적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4. 사회적 지지는 이용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4-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2.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사회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조사도구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 사회학적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동거가족형태, 정기적인 소득, 경제적 생활수준, 건강상태, 기타 이용기관 등 8문항으로 일반적인 특징으로 설문하고 있다.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는 하위 변인으로 서비스 환경 3문항, 서비스 내용 4문항, 대응성 5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개 변인으로 설정한 사회적 지지에서 하위 변인으로 정서적 지지 3문항, 정보적 지지 3문항, 도구적 지지 4문항, 사회활동 지지 2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삶의 만족도는 자아존중감 3문항, 자아성취감 4문항, 노화에 대한 태도 4문항, 현실 만족감 3문항 총 14문항으로 본 연구 설문지는 총 4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른 요인별 설문에 주요내용은 다음 <표 4-1> 과 같다.

<표 4-1> 설문문항 구성

구분		문 항	문항수
독립 변인	복지관	서비스 환경 (3)	12
	이용	서비스 내용 (4)	
	만족도	대응성 (5)	
매개 변인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3)	12
		정보적 지지 (3)	
		도구적 지지 (4)	
		사회활동 지지 (2)	

		자아존중감 (3)	
종속	삶의	자아성취감 (4)	
변인	만족도	노화에 대한 태도 (4)	14
		현실만족감 (3)	
일반적	특성	성별(1), 연령(1), 최종학력(1), 동거가족형태(1), 소득 근로활동(1), 경제적 생활수준(1), 건강상태(1), 기타 이용기관(1)	8
		전체	46

1)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1985)가 처음으로 개발한 모형 SERVQUAL(Service Quality)의 모형을 바탕으로, 복지관 이용만족도의 서비스 환경요인, 서비스의 내용은 PZB척도의 신뢰성에서 지표와, 복지관의 대응성은 SERVQUAL 모형의 보증성 과 대응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정영희(2008)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 해서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는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지 지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노인복지관 만족도 하위 요인별 문항은 다음 <표 4-2> 와 같다.

〈표 4-2〉 노인복지관 만족도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

변수	문항내용	문항 번호	문항수	선행연구	본 연구
				신뢰도 (Cronbach [′])	신뢰도 (Cronbach [′])
서비스 환경	접근성	I -1	3	.889	.800
	편안함	I -2			
	이용 절차	I -3			
서비스 내용	공정한 서비스	I -4	4	.917	.847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감	I -5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I -6			
	관련정보의 제공	I -7			
대응성	담당직원의 친절성	I -8	5	.845	.851
	서비스 이행시간 준수	I -9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I -10			
	프로그램 지연 및 중단	I -11			
	서비스 환경 개선	I -12			
총 12문항					.926

2)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 척도는 김재희(2012)가 수정, 보완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지지 행위의 속성 4가지 하위영역 즉 정서적 지지 3문항, 정보적 지지 3문항, 도구적 지지 4문항, 사회활동 지지 2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는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의 하위 요인별 문항은 다음 <표 4-3> 과 같다.

<표 4-3>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의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

변수	문항내용	문항 번호	문항수	선행연구	본 연구
				신뢰도 (Cronbach α)	신뢰도 (Cronbach α)
정서적 지지	존경받고 있는 느낌	II-1	3	.746	.779
	관심 주는 사람	II-2			
	속사정 털어놓을 사람	II-3			
정보적 지지	집안 일 도와주는 사람	II-4	3	.807	.652
	돈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	II-5			
	아플 때 보살피 주는 사람	II-6			
도구적 지지	잘 가르쳐 주는 사람	II-7	4	.870	.831
	결단을 도와주는 사람	II-8			
	사회생활 도와주는 사람	II-9			
	사회활동 도와주는 사람	II-10			

사회 활동 지지	여행, 등산 같이 할 사람 취미생활 함께 할 사람	II-11 II-12	2	.794	.776
총 12문항					.891

3)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 척도는, Neugarten, Havighurst and Tobin(1961)이 개발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 척도(Life Satisfaction Index-zLSIZ)를 이창은(2000)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번역한 것을 사용한 김우신(2013)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삶의 만족도 행위의 속성 4가지 하위영역 즉 자아존중감 3문항, 자아성취감 4문항, 노화에 대한 태도 4문항, 현실 만족감 3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는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의 하위 요인별 문항은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노인의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의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

변수	문항내용	문항 번호	문항수	선행연구	본 연구
				신뢰도 (Cronbach [′])	신뢰도 (Cronbach [′])
자아 존중감	자신의 상태를 인정	Ⅲ-8	3	.887	.559
	현재의 본인의 상태를 인정	Ⅲ-11			
	귀히 여기는 정도	Ⅲ-14			
자아 성취감	삶의 여유 정도	Ⅲ-1	4	.872	.775
	과거와 현재의 행복감	Ⅲ-4			
	인생의 만족감	Ⅲ-5			
	기대감에 따른 만족감	Ⅲ-12			
노화에 대한 태도	노화에 대한 인정	Ⅲ-2	4	.884	.673
	삶의 대한 즐거움	Ⅲ-7			
	현재 삶의 만족감	Ⅲ-9			
	계획 있는 삶	Ⅲ-13			
현실 만족감	현재의 삶의 만족도	Ⅲ-3	3	.857	.516
	인생에 대한 성취감	Ⅲ-6			
	삶의 무력감	Ⅲ-10			
총 14문항				.888	.830

4) 인구 사회학적 특성

노인의 기본적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최종학력, 동거가족형태, 정기적인 소득 근로활동,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기타 이용기관의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coding) 과정을 거친 후, 본 연구에서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처리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Win 23.0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기법(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설계된 설문 문항으로부터 검증에 사용할 주요 변수를 추출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 차이검증(t-test)과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주요 변수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여 설명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주요 변인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설명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도출한 주요 변수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sobel test를 통하여, 매개변수를 분석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결과를 설명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고, 매개효과로서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인 노인복지관 이용자 노인들의 대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기술하였으며, 연령은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0세, 85세 이상 5세 분류로 정의하였으며, 다중응답으로 설문한 문항인 동거가족형태 문항에 대한 결과는 가족형태 중복1, 가족형태 중복2, 가족형태 중복3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총 265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5-1> 과 같다. 본 연구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96명(36.2%), 여자 169명(63.8%)으로 여성 응답자가 많았다. 연령대는 60~64세 30명(11.3%), 65~69세 105명(39.6%), 70~74세 80명(30.2%), 75세 이상 50명(18.9%)으로, 65~69세 105명(39.6%)이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 45명(17%), 중학교 졸업 63명(23.8%), 고등학교 졸업 89명(33.6%), 대학교 졸업 이상 68명(25.7%)으로 고등학교 졸업 89명(33.6%)이 가장 많았다. 동거가족 형태는 다중응답 설문으로 전체 인원이 표본 집단보다 더 많은 표본이 차지한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 52명(17.2%),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노인 175명(57.8%), 자녀와 함께 사시는 노인 59명(19.5%), 손자와 함께 사시는 노인 10명(3.3%), 기타 7명(2.3%)으로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노인 175명(57.8%)이 가장 많았다. 기타 응답으로는 다른 어르신, 어머니, 타 동거인과 사신다는 의견이 있었다.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근로활동은 노인일자리 45명(17.0%), 공공근로 16명(6.0%), 자영업 26명(9.8%), 없음 145명(54.7%), 기타 33명(12.5%)

으로, 없음 145명(54.7%)이 가장 많았다. 기타 의견에는 농업, 자활기관 등이 있었다. 즉,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이 120명(45.3%),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노인이 145명(54.7%)으로 나타났다. 경제생활 수준은 상 3명(1.1%), 중상 61명(23.0%), 중 133명(50.2%), 중하 54명(20.4%), 하 14명(5.3%)으로 중 133명(50.2%)이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는 아주 좋다 17명(6.4%), 좋다 75명(28.3%), 보통이다 131명(49.4%), 좋지 못하다 39명(14.7%), 아주 좋지 못하다 3명(1.1%)으로 보통이다 131명(49.4%)이 가장 많았다. 노인복지관외 이용하는 기관의 경우 평생학습관 29명(10.9%), 행정복지센터 36명(13.6%), 경로당 79명(29.8%), 노인대학 24명(9.1%), 기타 97명(36.6%)으로, 기타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기타 의견에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여성대학, 이는 타 기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노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65)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96	36.2
	여자	169	63.8
연령대	60~64세	30	11.3
	65~69세	105	39.6
	70~74세	80	30.2
	75세 이상	50	18.9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5	17.0
	중학교 졸업	63	23.8
	고등학교 졸업	89	33.6
	대학교 졸업 이상	68	25.7
동거형태 (N=303) (*다중응답)	독거	52	17.2
	배우자	175	57.8
	자녀	59	19.5
	손자	10	3.3
	기타	7	2.3
경제활동	유	120	45.3
	무	145	54.7
경제수준	상	64	24.2
	중	133	50.2
	하	68	25.7
건강상태	아주 좋다	17	6.4
	좋다	75	28.3
	보통이다	131	49.4
	좋지 못하다	39	14.7
	아주 좋지 못하다	3	1.1
타 기관 이용	평생학습관	29	10.9
	행정복지센터	36	13.6
	경로당	79	29.8
	노인대학	24	9.1
	기타	97	36.6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1)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수준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의 수준은 <표 5-2> 와 같다.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8점($SD=.588$)으로 다소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였다. 또한, 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대응성 4.02점($SD=.601$), 서비스 내용 4.00점($SD=.614$), 서비스 환경 만족도는 3.88점($SD=.765$)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수준

(N=265)

구분	최소값(Min)	최대값(Max)	평균(M)	표준편차(SD)
서비스 환경	2.00	5.00	3.88	.765
서비스 내용	2.50	5.00	4.00	.614
대응성	2.40	5.00	4.02	.601
복지관 이용만족도(전체)	2.42	5.00	3.98	.588

2) 사회적 지지 수준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표 5-3> 과 같다.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3.68점($SD=.514$)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 변인별로 살펴보면, 도구적 지지 3.75점($SD=.577$), 사회활동 지지 3.74점($SD=.705$), 정서적 지지 3.68점($SD=.591$), 정보적 지지 3.53점($SD=.6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 사회적 지지 수준

(N=265)

구분	최소값(Min)	최대값(Max)	평균(M)	표준편차(SD)
정서적 지지	2.00	5.00	3.68	.591
정보적 지지	1.67	5.00	3.53	.663
도구적 지지	2.25	5.00	3.75	.577
사회활동 지지	1.00	5.00	3.74	.705
사회적 지지(전체)	2.25	5.00	3.68	.514

3) 삶의 만족도 수준

삶의 만족도 수준은 <표 5-4> 와 같다.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2점 ($SD=.470$)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삶의 만족도 하위 변인별로 살펴보면, 자아성취감 3.44점($SD=.564$), 자아존중감 3.42점($SD=.667$), 노화에 대한 태도 3.42점($SD=.576$), 현실 만족감 3.39점($SD=.67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 삶의 만족도 수준

(N=265)

구분	최소값(Min)	최대값(Max)	평균(M)	표준편차(SD)
자아존중감	2.00	4.67	3.42	.667
자아성취감	2.25	5.00	3.44	.564
노화에 대한 태도	2.00	5.00	3.42	.576
현실 만족감	2.00	5.00	3.39	.672
삶의 만족도(전체)	2.57	4.86	3.42	.470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집단 간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과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일원 배치 분산분석의 사후 분석을 위해 Scheffe 사후 검정을 사용하였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차이 분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환경 만족도 차이 분석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환경 만족도 집단 간 차이 결과는 <표 5-5>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서비스 환경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이 3.89점으로 여자의 평균 3.88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서비스 환경 만족도 차이는 65~69세가 3.9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75세 이상 3.91점, 60~64세 3.87점, 70~74세 3.76점 순으로 나타났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서비스 환경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4.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 3.91점, 고등학교 졸업 3.89점, 중학교 졸업 3.69점 순으로 나타났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에 따른 서비스 환경 만족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861, p<01$), 경제활동하는 노인의 평균 4.03점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평균 3.76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에 따른 서비스 환경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3.559, p<05$), 사후검증 결과, '상'의 평균이 4.01점으로 '중'의 평균 3.80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른 서비스 환경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4.916, p<01$), 사후검증 결과, '아주 좋다'의 평균이 4.49점으로

‘좋다’의 평균 3.85점, ‘보통이다’의 평균 3.77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복지관 외 이용하는 타 기관에 따른 서비스 환경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경로당이 4.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복지센터 3.89점, 기타 3.84점, 노인대학 3.81점, 평생학습관 3.71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5-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환경 차이 분석

(N=265)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 (SD)	t/F	p	사후검정 (Scheffe)
성별	남자	96	3.89	.682	.099	.921	-
	여자	169	3.88	.810			
연령대	60~64세 ^a	30	3.87	.766	1.101	.349	-
	65~69세 ^b	105	3.96	.717			
	70~74세 ^c	80	3.76	.774			
	75세 이상 ^d	50	3.91	.841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a	45	4.08	.749	2.363	.072	-
	중학교 졸업 ^b	63	3.69	.793			
	고등학교 졸업 ^c	89	3.89	.757			
	대학교 졸업 이상 ^d	68	3.91	.735			
경제 활동	유 ^a	120	4.03	.770	2.861**	.005	-
	무 ^b	145	3.76	.742			
경제 수준	상 ^a	64	4.10	.758	3.559*	.030	a>b
	중 ^b	133	3.80	.707			
	하 ^c	68	3.82	.847			
건강 상태	아주 좋다 ^a	17	4.49	.443	4.916**	.001	a>b, c
	좋다 ^b	75	3.85	.687			
	보통이다 ^c	131	3.77	.806			
	좋지 못하다 ^d	39	3.97	.739			
	아주 좋지 못하다 ^e	3	4.78	.385			
타 기관 이용	평생학습관 ^a	29	3.71	.739	1.035	.390	-
	행정복지센터 ^b	36	3.89	.843			
	경로당 ^c	79	4.01	.704			
	노인대학 ^d	24	3.81	.636			
	기타 ^e	97	3.84	.815			

* $p < .05$, ** $p < .01$, *** $p < .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내용 차이 분석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내용 만족도 집단 간 차이 결과는 <표 5-6>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서비스 내용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이 4.08점으로 여자의 평균 3.96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서비스 내용 만족도 차이는 75세 이상이 4.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5~69세 4.01점, 60~64세 3.97점, 70~74세 3.95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서비스 내용 만족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797, p<05$).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4.24점으로 중학교 졸업 3.97점보다 평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에 따른 서비스 내용 만족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t=5.082, p<001$), 경제활동하는 노인의 평균 4.20점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평균 3.8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에 따른 서비스 내용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상'의 평균 4.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의 평균 4.05, '중'의 평균 3.93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상태에 따른 서비스 내용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3.310, p<01$), 건강상태가 '아주 좋지 못하다'의 평균이 4.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주 좋다'의 평균 4.35점, '좋다'의 평균 3.98점, '중'의 평균 3.98점, '보통이다'의 평균 3.94점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외 이용하는 타 기관에 따른 서비스 내용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경로당이 4.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생학습관 4.07점, 노인대학 4.04점, 기타 3.97점, 행정복지센터 3.85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5-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내용 차이 분석

(N=265)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 (SD)	t/F	p	사후검정 (Scheffe)
성별	남자	96	4.08	.560	1.456	.147	-
	여자	169	3.96	.640			
연령대	60~64세 ^a	30	3.97	.615	.718	.542	-
	65~69세 ^b	105	4.01	.604			
	70~74세 ^c	80	3.95	.657			
	75세 이상 ^d	50	4.11	.565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a	45	4.24	.551	3.797*	.011	a>b
	중학교 졸업 ^b	63	3.85	.553			
	고등학교 졸업 ^c	89	3.97	.621			
	대학교 졸업 이상 ^d	68	4.03	.658			
경제 활동	유 ^a	120	4.20	.598	5.082***	.000	-
	무 ^b	145	3.84	.577			
경제 수준	상 ^a	64	4.11	.597	2.100	.125	-
	중 ^b	133	3.93	.623			
	하 ^c	68	4.05	.601			
건강 상태	아주 좋다 ^a	17	4.35	.566	3.310*	.011	
	좋다 ^b	75	3.98	.622			
	보통이다 ^c	131	3.94	.612			
	좋지 못하다 ^d	39	4.04	.562			
	아주 좋지 못하다 ^e	3	4.83	.289			
타 기관 이용	평생학습관 ^a	29	4.07	.647	1.066	.374	-
	행정복지센터 ^b	36	3.85	.669			
	경로당 ^c	79	4.08	.547			
	노인대학 ^d	24	4.04	.545			
	기타 ^e	97	3.97	.648			

* $p < .05$, ** $p < .01$, *** $p < .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응성 차이 분석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응성 만족도 집단 간 차이는 결과는 <표 5-7>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대응성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이 4.08점으로 여자의 평균 3.98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대응성 만족도 차이는 75세 이상이 4.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5~69세가 4.01점, 60~64세 3.97점, 70~74세 3.97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대응성 만족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4.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 4.04점, 고등학교 졸업 3.99점, 중학교 졸업 3.90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제활동에 따른 대응성 만족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4.370, p<001$), 경제활동하는 노인의 평균 4.19점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평균 3.87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에 따른 대응성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상’의 평균 4.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의 평균 4.00점, ‘중’의 평균 3.97점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른 대응성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3.317, p<05$), ‘아주 좋지 못하다’의 평균이 4.8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주 좋다’ 4.36점, ‘좋지 못하다’ 4.02점, ‘좋다’ 3.98점, ‘보통이다’ 3.97점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외 이용하는 타 기관에 따른 대응성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대학 4.10점 가장 높았으며, 경로당이 4.08점, 평생학습관 4.02점, 기타 3.98점, 행정복지센터 3.89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5-7〉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응성 차이 분석

(N=265)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 (SD)	t/F	p	사후검정 (Scheffe)																																																																																																																
성별	남자	96	4.08	.551	1.312	.191	-																																																																																																																
	여자	169	3.98	.627				연령대	60~64세 ^a	30	3.97	.553	.651	.583	-	65~69세 ^b	105	4.01	.618	70~74세 ^c	80	3.97	.619	75세 이상 ^d	50	4.12	.569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a	45	4.18	.566	1.898	.130	-	중학교 졸업 ^b	63	3.90	.589	고등학교 졸업 ^c	89	3.99	.626	대학교 졸업 이상 ^d	68	4.04	.590	경제 활동	유 ^a	120	4.19	.594	4.370***	.000	-	무 ^b	145	3.87	.571	경제 수준	상 ^a	64	4.13	.572	1.672	.190	-	중 ^b	133	3.97	.614	하 ^c	68	4.00	.597	건강 상태	아주 좋다 ^a	17	4.36	.491	3.317*	.011		좋다 ^b	75	3.98	.569	보통이다 ^c	131	3.97	.627	좋지 못하다 ^d	39	4.02	.558	아주 좋지 못하다 ^e	3	4.87	.231	타 기관 이용	평생학습관 ^a	29	4.02	.538	.785	.536	-	행정복지센터 ^b	36	3.89	.608	경로당 ^c	79	4.08	.569	노인대학 ^d	24	4.10	.590
연령대	60~64세 ^a	30	3.97	.553	.651	.583	-																																																																																																																
	65~69세 ^b	105	4.01	.618																																																																																																																			
	70~74세 ^c	80	3.97	.619																																																																																																																			
	75세 이상 ^d	50	4.12	.569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a	45	4.18	.566	1.898	.130	-																																																																																																																
	중학교 졸업 ^b	63	3.90	.589																																																																																																																			
	고등학교 졸업 ^c	89	3.99	.626																																																																																																																			
	대학교 졸업 이상 ^d	68	4.04	.590																																																																																																																			
경제 활동	유 ^a	120	4.19	.594	4.370***	.000	-																																																																																																																
	무 ^b	145	3.87	.571																																																																																																																			
경제 수준	상 ^a	64	4.13	.572	1.672	.190	-																																																																																																																
	중 ^b	133	3.97	.614																																																																																																																			
	하 ^c	68	4.00	.597																																																																																																																			
건강 상태	아주 좋다 ^a	17	4.36	.491	3.317*	.011																																																																																																																	
	좋다 ^b	75	3.98	.569																																																																																																																			
	보통이다 ^c	131	3.97	.627																																																																																																																			
	좋지 못하다 ^d	39	4.02	.558																																																																																																																			
	아주 좋지 못하다 ^e	3	4.87	.231																																																																																																																			
타 기관 이용	평생학습관 ^a	29	4.02	.538	.785	.536	-																																																																																																																
	행정복지센터 ^b	36	3.89	.608																																																																																																																			
	경로당 ^c	79	4.08	.569																																																																																																																			
	노인대학 ^d	24	4.10	.590																																																																																																																			
	기타 ^e	97	3.98	.645																																																																																																																			

* $p < .05$, ** $p < .01$, *** $p < .001$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전체) 만족도 차이 분석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평균 차이 결과는 <표 5-8>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이 4.03점으로 여자의 평균 3.95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차이는 75세 이상이 4.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5~69세 4.00점, 60~64세 3.94점, 70~74세 3.91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089$, $p<05$).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4.17점으로 중학교 졸업 3.83점보다 평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4.575$, $p<001$), 경제활동하는 노인의 평균 4.15점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평균 3.8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상’의 평균 4.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의 평균 3.97, ‘중’의 평균 3.91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상태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4.487$, $p<01$), 사후검증 결과, ‘아주 좋다’의 평균이 4.39점으로 ‘보통이다’의 평균 3.9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외 이용하는 기관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경로당이 4.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대학 4.01점, 평생학습관 3.96점, 기타 3.94점, 행정복지센터 3.88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5-8〉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차이 분석

(N=265)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 (SD)	t/F	p	사후검정 (Scheffe)
성별	남자	96	4.03	.532	1.078	.282	-
	여자	169	3.95	.616			
연령대	60~64세 ^a	30	3.94	.552	.747	.525	-
	65~69세 ^b	105	4.00	.584			
	70~74세 ^c	80	3.91	.615			
	75세 이상 ^d	50	4.06	.575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a	45	4.17	.521	3.089*	.028	a>b
	중학교 졸업 ^b	63	3.83	.567			
	고등학교 졸업 ^c	89	3.96	.608			
	대학교 졸업 이상 ^d	68	4.00	.593			
경제 활동	유 ^a	120	4.15	.581	4.575***	.000	-
	무 ^b	145	3.83	.555			
경제 수준	상 ^a	64	4.11	.565	2.577	.078	-
	중 ^b	133	3.91	.585			
	하 ^c	68	3.97	.600			
건강 상태	아주 좋다 ^a	17	4.39	.458	4.487**	.002	a>c
	좋다 ^b	75	3.95	.550			
	보통이다 ^c	131	3.91	.610			
	좋지 못하다 ^d	39	4.02	.539			
	아주 좋지 못하다 ^e	3	4.83	.289			
타 기관 이용	평생학습관 ^a	29	3.96	.589	.778	.541	-
	행정복지센터 ^b	36	3.88	.615			
	경로당 ^c	79	4.06	.527			
	노인대학 ^d	24	4.01	.519			
	기타 ^e	97	3.94	.639			

* $p < .05$, ** $p < .01$, *** $p < .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 분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지지 차이 분석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 결과는 <표 5-9>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정서적 지지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 3.68점, 여자의 평균 3.68점으로 평균이 같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정서적 지지 만족도 차이는 60~64세가 3.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5~69세 3.71점, 75세 이상 3.91점, 70~74세 3.60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정서적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3.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 3.71점, 고등학교 졸업 3.70점, 중학교 졸업 3.54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에 따른 정서적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388, p<0.05$), 경제활동하는 노인의 평균이 3.78점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평균 3.60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에 따른 정서적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3.469, p<0.05$), 사후검증 결과, '상'의 평균이 3.82점으로 '하'의 평균 3.5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른 정서적 지지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7.147, p<0.001$), 사후검증 결과 '아주 좋다'의 평균이 4.20점으로 '보통이다'의 평균 3.63점, '좋지 못하다'의 평균 3.47점 보다 높았고, '아주 좋지 못하다'의 평균이 4.56점으로 '좋지 못하다'의 평균 3.4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외 이용하는 타 기관에 따른 정서적 지지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대학이 3.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로당 3.71점, 평생학습관 3.68점, 행정복지센터 3.67점, 기타 3.64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5-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지지 차이 분석

(N=265)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 (SD)	t/F	p	사후검정 (Scheffe)
성별	남자	96	3.68	.535	.076	.939	-
	여자	169	3.68	.622			
연령대	60~64세 ^a	30	3.72	.561	.639	.591	-
	65~69세 ^b	105	3.71	.593			
	70~74세 ^c	80	3.60	.536			
	75세 이상 ^d	50	3.71	.689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a	45	3.79	.672	1.837	.141	-
	중학교 졸업 ^b	63	3.54	.576			
	고등학교 졸업 ^c	89	3.70	.561			
	대학교 졸업 이상 ^d	68	3.71	.577			
경제 활동	유 ^a	120	3.78	.619	2.388*	.018	-
	무 ^b	145	3.60	.557			
경제 수준	상 ^a	64	3.82	.611	3.469*	.033	a>c
	중 ^b	133	3.68	.553			
	하 ^c	68	3.55	.622			
건강 상태	아주 좋다 ^a	17	4.20	.566	7.147***	.000	a>c, d d<e
	좋다 ^b	75	3.73	.580			
	보통이다 ^c	131	3.63	.544			
	좋지 못하다 ^d	39	3.47	.610			
	아주 좋지 못하다 ^e	3	4.56	.509			
타 기관 이용	평생학습관 ^a	29	3.68	.567	.363	.835	-
	행정복지센터 ^b	36	3.67	.627			
	경로당 ^c	79	3.71	.635			
	노인대학 ^d	24	3.78	.544			
	기타 ^e	97	3.64	.565			

* $p < .05$, ** $p < .01$, *** $p < .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보적 지지 차이 분석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보적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 결과는 <표 5-10>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정보적 지지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이 3.65점으로 여자의 평균 3.46점 보다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275, p<0.05$). 연령대에 따른 정보적 지지 만족도 차이는 65~69세가 3.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0~64세 3.58점, 70~74세 3.50점, 75세 이상 3.37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정보적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 이상이 3.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 3.59점, 초등학교 졸업 이하 3.49점, 중학교 졸업 3.39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에 따른 정보적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는 경제활동하는 노인의 평균이 3.55점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평균 3.5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 수준에 따른 정보적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7.599, p<0.001$), 사후검증 결과, '상'의 평균 3.81점과 '중'의 평균 3.58점이 '하'의 평균 3.1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른 정보적 지지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6.530, p<0.001$), 사후검증 결과 '아주 좋다'의 평균 3.80점, '좋다'의 평균 3.69점이 '좋지 못하다'의 평균 3.12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외 이용하는 타 기관에 따른 정보적 지지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평생학습관이 3.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대학 3.72점, 경로당 3.52점, 기타 3.45점, 행정복지센터 3.44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5-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보적 지지 차이 분석

(N=265)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 (SD)	t/F	p	사후검정 (Scheffe)
성별	남자	96	3.65	.697	2.275*	.024	-
	여자	169	3.46	.634			
연령대	60~64세 ^a	30	3.58	.410	1.705	.166	-
	65~69세 ^b	105	3.62	.695			
	70~74세 ^c	80	3.50	.602			
	75세 이상 ^d	50	3.37	.783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a	45	3.49	.818	1.669	.174	-
	중학교 졸업 ^b	63	3.39	.670			
	고등학교 졸업 ^c	89	3.59	.603			
	대학교 졸업 이상 ^d	68	3.61	.606			
경제 활동	유 ^a	120	3.55	.688	.428	.669	-
	무 ^b	145	3.51	.643			
경제 수준	상 ^a	64	3.81	.622	17.599***	.000	a>c b>c
	중 ^b	133	3.58	.568			
	하 ^c	68	3.18	.725			
건강 상태	아주 좋다 ^a	17	3.80	.442	6.530***	.000	a>d b>d
	좋다 ^b	75	3.69	.568			
	보통이다 ^c	131	3.54	.633			
	좋지 못하다 ^d	39	3.12	.800			
	아주 좋지 못하다 ^e	3	3.00	1.000			
타 기관 이용	평생학습관 ^a	29	3.78	.439	2.090	.082	-
	행정복지센터 ^b	36	3.44	.773			
	경로당 ^c	79	3.52	.731			
	노인대학 ^d	24	3.72	.619			
	기타 ^e	97	3.45	.609			

* $p < .05$, ** $p < .01$, *** $p < .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구적 지지 차이 분석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구적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 결과는 <표 5-11>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도구적 지지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이 3.78점으로 여자의 평균 3.73점 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도구적 지지 만족도 차이는 65~69세가 3.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0~64세 3.76점, 75세 이상 3.76점, 70~74세 3.69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도구적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2.911, p<0.05$),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평균이 3.90점으로 중학교 졸업의 평균 3.5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따른 도구적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3.291, p<0.01$), 경제활동하는 노인의 평균이 3.88점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평균 3.6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수준에 따른 도구적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8.284, p<0.001$), 사후검증 결과 '상'의 평균이 3.96점으로 '중'의 평균 3.75점, '하'의 평균 3.56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른 도구적 지지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4.243, p<0.01$), 사후검증 결과 '아주 좋다'의 평균이 4.22점으로 '보통이다'의 평균 3.70점, '좋지 못하다'의 평균 3.60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외 이용하는 타 기관에 따른 도구적 지지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평생학습관과 노인대학이 각각 3.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로당 3.78점, 행정복지센터 3.71점, 기타 3.66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5-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구적 지지 차이 분석

(N=265)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 (SD)	t/F	p	사후검정 (Scheffe)
성별	남자	96	3.78	.584	.684	.495	-
	여자	169	3.73	.574			
연령대	60~64세 ^a	30	3.76	.535	.388	.762	-
	65~69세 ^b	105	3.79	.607			
	70~74세 ^c	80	3.69	.548			
	75세 이상 ^d	50	3.76	.592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a	45	3.90	.638	2.911*	.035	a>b
	중학교 졸업 ^b	63	3.58	.539			
	고등학교 졸업 ^c	89	3.78	.534			
	대학교 졸업 이상 ^d	68	3.76	.600			
경제 활동	유 ^a	120	3.88	.606	3.291**	.001	-
	무 ^b	145	3.64	.532			
경제 수준	상 ^a	64	3.96	.537	8.284***	.000	a>b, c
	중 ^b	133	3.75	.569			
	하 ^c	68	3.56	.570			
건강 상태	아주 좋다 ^a	17	4.22	.475	4.243**	.002	a>c, d
	좋다 ^b	75	3.79	.493			
	보통이다 ^c	131	3.70	.569			
	좋지 못하다 ^d	39	3.60	.704			
	아주 좋지 못하다 ^e	3	4.08	.144			
타 기관 이용	평생학습관 ^a	29	3.89	.507	1.466	.213	-
	행정복지센터 ^b	36	3.71	.631			
	경로당 ^c	79	3.78	.560			
	노인대학 ^d	24	3.89	.448			
	기타 ^e	97	3.66	.610			

* $p < .05$, ** $p < .01$, *** $p < .001$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활동 지지 차이 분석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활동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 결과는 <표 5-12>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사회활동 지지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이 3.86점으로 여자의 평균 3.68점 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032, p<05$). 연령대에 따른 사회활동 지지 만족도 차이는 60~64세가 3.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5~69세 3.77점, 75세 이상 3.71점, 70~74세 3.66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사회활동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 이상이 3.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 3.79점, 고등학교 졸업 3.72점, 중학교 졸업 3.65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에 따른 사회활동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는 경제활동 하는 노인의 평균이 3.81점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평균 3.69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경제 수준에 따른 사회활동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2.927, p<001$), 사후검증 결과 ‘상’의 평균 3.99점, ‘중’의 평균 3.79점으로 ‘하’의 평균 3.4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른 사회활동 지지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3.988, p<01$), 사후검증 결과 ‘아주 좋다’의 평균이 4.21점으로 ‘좋지 못하다’의 평균 3.53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외 이용하는 타 기관에 따른 사회활동 지지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평생학습관이 3.90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로당 3.84점, 노인대학 3.83점, 행정복지센터 3.64점, 기타 3.64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5-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활동 지지 차이 분석

(N=265)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 (SD)	t/F	p	사후검정 (Scheffe)
성별	남자	96	3.86	.713	2.032*	.043	-
	여자	169	3.68	.693			
연령대	60~64세 ^a	30	3.93	.487	1.156	.327	-
	65~69세 ^b	105	3.77	.711			
	70~74세 ^c	80	3.66	.660			
	75세 이상 ^d	50	3.71	.852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a	45	3.79	.863	.737	.531	-
	중학교 졸업 ^b	63	3.65	.693			
	고등학교 졸업 ^c	89	3.72	.678			
	대학교 졸업 이상 ^d	68	3.82	.633			
경제 활동	유 ^a	120	3.81	.737	1.367	.173	-
	무 ^b	145	3.69	.675			
경제 수준	상 ^a	64	3.99	.652	12.927***	.000	a>c b>c
	중 ^b	133	3.79	.600			
	하 ^c	68	3.41	.819			
건강 상태	아주 좋다 ^a	17	4.21	.502	3.988**	.004	a>d
	좋다 ^b	75	3.88	.544			
	보통이다 ^c	131	3.67	.738			
	좋지 못하다 ^d	39	3.53	.803			
	아주 좋지 못하다 ^e	3	3.67	1.041			
타 기관 이용	평생학습관 ^a	29	3.90	.507	1.518	.197	-
	행정복지센터 ^b	36	3.64	.825			
	경로당 ^c	79	3.84	.678			
	노인대학 ^d	24	3.83	.654			
	기타 ^e	97	3.64	.732			

* $p < .05$, ** $p < .01$, *** $p < .001$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전체) 차이 분석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 결과는 <표 5-13>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이 3.74점으로 여자의 평균 3.64점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사회적 지지 만족도 차이는 60~64세가 3.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5~69세 3.72점, 75세 이상 3.64점, 70~74세 3.62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사회적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3.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 3.72점, 고등학교 졸업 3.70점, 중학교 졸업 3.53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에 따른 사회적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는 경제활동하는 노인의 평균이 3.76점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평균 3.6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358, p<.05$). 경제 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14.377, p<001$), 사후검증 결과 ‘상’의 평균이 3.89점으로 ‘중’의 평균 3.70점, ‘하’의 평균 3.44점보다 높았고, ‘중’의 평균이 3.70점으로 ‘하’의 평균 3.44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6.469, p<001$), 사후검증 결과 ‘아주 좋다’의 평균이 4.11점으로 ‘보통이다’의 평균 3.64점, ‘좋지 못하다’의 평균 3.44점 보다 높았고, ‘좋다’의 평균이 3.77점으로 ‘좋지 못하다’의 평균 3.44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외 이용하는 타 기관에 따른 사회적 지지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평생학습관 3.81점과 노인대학 3.8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복지센터 3.62점, 기타 3.60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5-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 분석

(N=265)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 (SD)	t/F	p	사후검정 (Scheffe)																																																																																																																
성별	남자	96	3.74	.530	1.468	.143	-																																																																																																																
	여자	169	3.64	.504				연령대	60~64세 ^a	30	3.73	.407	.825	.481	-	65~69세 ^b	105	3.72	.550	70~74세 ^c	80	3.62	.466	75세 이상 ^d	50	3.64	.568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a	45	3.75	.589	2.216	.087	-	중학교 졸업 ^b	63	3.53	.504	고등학교 졸업 ^c	89	3.70	.471	대학교 졸업 이상 ^d	68	3.72	.513	경제 활동	유 ^a	120	3.76	.534	2.358*	.019	-	무 ^b	145	3.61	.489	경제 수준	상 ^a	64	3.89	.492	14.377***	.000	a>b, c b>c	중 ^b	133	3.70	.475	하 ^c	68	3.44	.518	건강 상태	아주 좋다 ^a	17	4.11	.346	6.469***	.000	a>c, d b>d	좋다 ^b	75	3.77	.463	보통이다 ^c	131	3.64	.488	좋지 못하다 ^d	39	3.44	.614	아주 좋지 못하다 ^e	3	3.86	.459	타 기관 이용	평생학습관 ^a	29	3.81	.432	1.656	.161	-	행정복지센터 ^b	36	3.62	.541	경로당 ^c	79	3.71	.529	노인대학 ^d	24	3.81	.441
연령대	60~64세 ^a	30	3.73	.407	.825	.481	-																																																																																																																
	65~69세 ^b	105	3.72	.550																																																																																																																			
	70~74세 ^c	80	3.62	.466																																																																																																																			
	75세 이상 ^d	50	3.64	.568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a	45	3.75	.589	2.216	.087	-																																																																																																																
	중학교 졸업 ^b	63	3.53	.504																																																																																																																			
	고등학교 졸업 ^c	89	3.70	.471																																																																																																																			
	대학교 졸업 이상 ^d	68	3.72	.513																																																																																																																			
경제 활동	유 ^a	120	3.76	.534	2.358*	.019	-																																																																																																																
	무 ^b	145	3.61	.489																																																																																																																			
경제 수준	상 ^a	64	3.89	.492	14.377***	.000	a>b, c b>c																																																																																																																
	중 ^b	133	3.70	.475																																																																																																																			
	하 ^c	68	3.44	.518																																																																																																																			
건강 상태	아주 좋다 ^a	17	4.11	.346	6.469***	.000	a>c, d b>d																																																																																																																
	좋다 ^b	75	3.77	.463																																																																																																																			
	보통이다 ^c	131	3.64	.488																																																																																																																			
	좋지 못하다 ^d	39	3.44	.614																																																																																																																			
	아주 좋지 못하다 ^e	3	3.86	.459																																																																																																																			
타 기관 이용	평생학습관 ^a	29	3.81	.432	1.656	.161	-																																																																																																																
	행정복지센터 ^b	36	3.62	.541																																																																																																																			
	경로당 ^c	79	3.71	.529																																																																																																																			
	노인대학 ^d	24	3.81	.441																																																																																																																			
	기타 ^e	97	3.60	.524																																																																																																																			

* $p < .05$, ** $p < .01$, *** $p < .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만족도 평균 차이 결과는 <표 5-14>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이 3.48점으로 여자의 평균 3.39점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자아존중감 만족도 차이는 60~64세가 3.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5~69세 3.45점, 70~74세 3.40점, 75세 이상 3.37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자아존중감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 이상이 3.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 3.49점, 초등학교 졸업 이하 3.40점, 중학교 졸업 3.26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에 따른 자아존중감 만족도 평균 차이는 경제활동하는 노인의 평균이 3.58점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평균 3.30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450, p<.01$). 경제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3.126, p<.05$), 사후검증 결과 ‘상’의 평균이 3.54점으로 ‘하’의 평균 3.26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른 자아존중감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5.041, p<.01$), 사후검증 결과 ‘아주 좋다’의 평균이 3.92점으로 ‘보통이다’의 평균 3.32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외 이용하는 타기관에 따른 자아존중감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대학이 3.68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생학습관 3.49점, 기타 3.44점, 경로당 3.34점, 행정복지센터 3.31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5-1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N=265)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 (SD)	t/F	p	사후검정 (Scheffe)																																																																																																																
성별	남자	96	3.48	.638	1.039	.300	-																																																																																																																
	여자	169	3.391	.683				연령대	60~64세 ^a	30	3.47	.714	.266	.850	-	65~69세 ^b	105	3.45	.675	70~74세 ^c	80	3.40	.653	75세 이상 ^d	50	3.37	.661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a	45	3.40	.774	1.915	.127	-	중학교 졸업 ^b	63	3.26	.603	고등학교 졸업 ^c	89	3.49	.678	대학교 졸업 이상 ^d	68	3.50	.619	경제 활동	유 ^a	120	3.58	.680	3.450**	.001	-	무 ^b	145	3.30	.631	경제 수준	상 ^a	64	3.54	.769	3.126*	.046	a>c	중 ^b	133	3.45	.655	하 ^c	68	3.26	.558	건강 상태	아주 좋다 ^a	17	3.92	.870	5.041**	.001	a>c	좋다 ^b	75	3.54	.669	보통이다 ^c	131	3.32	.621	좋지 못하다 ^d	39	3.40	.603	아주 좋지 못하다 ^e	3	2.67	.000	타기관 이용	평생학습관 ^a	29	3.49	.670	1.541	.191	-	행정복지센터 ^b	36	3.31	.690	경로당 ^c	79	3.34	.688	노인대학 ^d	24	3.68	.705
연령대	60~64세 ^a	30	3.47	.714	.266	.850	-																																																																																																																
	65~69세 ^b	105	3.45	.675																																																																																																																			
	70~74세 ^c	80	3.40	.653																																																																																																																			
	75세 이상 ^d	50	3.37	.661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a	45	3.40	.774	1.915	.127	-																																																																																																																
	중학교 졸업 ^b	63	3.26	.603																																																																																																																			
	고등학교 졸업 ^c	89	3.49	.678																																																																																																																			
	대학교 졸업 이상 ^d	68	3.50	.619																																																																																																																			
경제 활동	유 ^a	120	3.58	.680	3.450**	.001	-																																																																																																																
	무 ^b	145	3.30	.631																																																																																																																			
경제 수준	상 ^a	64	3.54	.769	3.126*	.046	a>c																																																																																																																
	중 ^b	133	3.45	.655																																																																																																																			
	하 ^c	68	3.26	.558																																																																																																																			
건강 상태	아주 좋다 ^a	17	3.92	.870	5.041**	.001	a>c																																																																																																																
	좋다 ^b	75	3.54	.669																																																																																																																			
	보통이다 ^c	131	3.32	.621																																																																																																																			
	좋지 못하다 ^d	39	3.40	.603																																																																																																																			
	아주 좋지 못하다 ^e	3	2.67	.000																																																																																																																			
타기관 이용	평생학습관 ^a	29	3.49	.670	1.541	.191	-																																																																																																																
	행정복지센터 ^b	36	3.31	.690																																																																																																																			
	경로당 ^c	79	3.34	.688																																																																																																																			
	노인대학 ^d	24	3.68	.705																																																																																																																			
	기타 ^e	97	3.44	.623																																																																																																																			

* $p < .05$, ** $p < .01$, *** $p < .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성취감 집단 간 차이 분석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성취감 만족도 평균 차이 결과는 <표 5-15>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자아성취감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이 3.45점으로 여자의 평균 3.44점 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자아성취감 만족도 차이는 60~64세가 3.6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5~69세 3.48점, 70~74세 3.38점, 75세 이상 3.38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자아성취감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3.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 3.46점, 대학교 졸업 이상 3.42점, 중학교 졸업 3.37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에 따른 자아성취감 만족도 평균 차이는 경제활동하는 노인의 평균이 3.46점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평균 3.43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제 수준에 따른 자아성취감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20.904, p<001$), 사후검증 결과 ‘상’의 평균이 3.73점으로 ‘중’의 평균 3.46점, ‘하’의 평균 3.46점보다 높았고, ‘중’의 평균이 3.46점으로 ‘하’의 평균 3.14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른 자아성취감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5.938, p<001$), 사후검증 결과 ‘아주 좋다’의 평균이 3.90점으로 ‘보통이다’의 평균 3.40점, ‘좋지 못하다’의 평균 3.19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외 이용하는 타 기관에 따른 자아성취감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대학이 3.60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로당 3.46점, 평생학습관 3.42점, 기타 3.41점, 행정복지센터 3.40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5-1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성취감 차이 분석

(N=265)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 (SD)	t/F	p	사후검정 (Scheffe)
성별	남자	96	3.45	.581	.211	.833	-
	여자	169	3.44	.556			
연령대	60~64세 ^a	30	3.60	.532	1.433	.234	-
	65~69세 ^b	105	3.48	.563			
	70~74세 ^c	80	3.38	.553			
	75세 이상 ^d	50	3.38	.596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a	45	3.46	.657	.756	.520	-
	중학교 졸업 ^b	63	3.37	.458			
	고등학교 졸업 ^c	89	3.51	.590			
	대학교 졸업 이상 ^d	68	3.42	.556			
경제 활동	유 ^a	120	3.46	.645	.488	.626	-
	무 ^b	145	3.43	.489			
경제 수준	상 ^a	64	3.73	.577	20.904***	.000	a>b, c b>c
	중 ^b	133	3.46	.476			
	하 ^c	68	3.14	.567			
건강 상태	아주 좋다 ^a	17	3.90	.644	5.938***	.000	a>c, d
	좋다 ^b	75	3.54	.492			
	보통이다 ^c	131	3.40	.550			
	좋지 못하다 ^d	39	3.19	.546			
	아주 좋지 못하다 ^e	3	3.42	.946			
타기관 이용	평생학습관 ^a	29	3.42	.583	.653	.625	-
	행정복지센터 ^b	36	3.40	.536			
	경로당 ^c	79	3.46	.548			
	노인대학 ^d	24	3.60	.556			
	기타 ^e	97	3.41	.587			

* $p < .05$, ** $p < .01$, *** $p < .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에 대한 태도 차이 분석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결과는 <표 5-16>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노화에 대한 태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이 3.44점으로 여자의 평균 3.41점 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노화에 대한 태도 차이는 65~69세가 3.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0~64세 3.49점, 70~74세 3.35점, 75세 이상 3.30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노화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3.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 3.48점, 중학교 졸업 3.37점, 대학교 졸업 이상 3.35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에 따른 노화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는 경제활동하는 노인의 평균이 3.48점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평균 3.38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제 수준에 따른 노화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7.020, p<01$), 사후검증 결과 ‘상’의 평균이 3.65점으로 ‘중’의 평균 3.37점, ‘하’의 평균 3.3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른 노화에 대한 태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3.683, p<01$), 사후검증 결과 ‘아주 좋다’의 평균이 3.78점으로 ‘좋지 못하다’의 평균 3.21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외 이용하는 타 기관에 따른 노화에 대한 태도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대학이 3.5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생학습관 3.53점, 행정복지센터 3.48점, 경로당 3.38점, 기타 3.37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5-1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에 대한 태도 차이 분석

(N=265)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 (SD)	t/F	p	사후검정 (Scheffe)
성별	남자	96	3.44	.601	.407	.685	-
	여자	169	3.41	.563			
연령대	60~64세 ^a	30	3.49	.535	2.427	.066	-
	65~69세 ^b	105	3.52	.582			
	70~74세 ^c	80	3.35	.509			
	75세 이상 ^d	50	3.30	.659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a	45	3.51	.569	1.213	.306	-
	중학교 졸업 ^b	63	3.37	.529			
	고등학교 졸업 ^c	89	3.48	.599			
	대학교 졸업 이상 ^d	68	3.35	.589			
경제 활동	유 ^a	120	3.48	.611	1.377	.170	-
	무 ^b	145	3.38	.544			
경제 수준	상 ^a	64	3.65	.622	7.020**	.001	a>b, c
	중 ^b	133	3.37	.549			
	하 ^c	68	3.31	.533			
건강 상태	아주 좋다 ^a	17	3.78	.723	3.683**	.006	a>d
	좋다 ^b	75	3.51	.550			
	보통이다 ^c	131	3.39	.555			
	좋지 못하다 ^d	39	3.21	.502			
	아주 좋지 못하다 ^e	3	3.50	1.146			
타 기관 이용	평생학습관 ^a	29	3.53	.525	1.169	.325	-
	행정복지센터 ^b	36	3.48	.571			
	경로당 ^c	79	3.38	.606			
	노인대학 ^d	24	3.58	.641			
	기타 ^e	97	3.37	.549			

* $p < .05$, ** $p < .01$, *** $p < .001$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실 만족감 차이 분석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실 만족감 평균차이 결과는 <표 5-17>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현실 만족감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이 3.43점으로 여자의 평균 3.37점 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현실 만족감 차이는 65~69세가 3.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0~64세 3.46점, 75세 이상 3.35점, 70~74세 3.29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현실 만족감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3.009$ $p<05$), 고등학교 졸업이 3.51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 3.47점, 중학교 졸업 3.28점, 초등학교 졸업 이하 3.21점 순이었다. 경제활동에 따른 현실 만족감 평균 차이는 경제활동하는 노인의 평균이 3.45점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평균 3.3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제 수준에 따른 현실 만족감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5.797$, $p<01$), 사후검증 결과 ‘상’의 평균 3.45점과 ‘중’의 평균 3.48점으로 ‘하’의 평균 3.16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른 현실 만족감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5.673$ $p<001$), 사후검증 결과 ‘아주 좋다’의 평균이 3.88점으로 ‘보통이다’의 평균 3.31점, ‘좋지 못하다’의 평균 3.15점 보다 높았고, ‘좋다’의 평균이 3.56점으로 ‘좋지 못하다’의 평균 3.1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외 이용하는 타 기관에 따른 현실 만족감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대학이 3.6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생학습관 3.41점, 기타 3.40점, 경로당 3.36점, 행정복지센터 3.27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5-17〉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실 만족감 차이 분석

(N=265)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 (SD)	t/F	p	사후검정 (Scheffe)
성별	남자	96	3.43	.667	.781	.435	-
	여자	169	3.37	.676			
연령대	60~64세 ^a	30	3.46	.681	1.231	.299	-
	65~69세 ^b	105	3.47	.726			
	70~74세 ^c	80	3.29	.646			
	75세 이상 ^d	50	3.35	.579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a	45	3.21	.701	3.009*	.031	
	중학교 졸업 ^b	63	3.28	.618			
	고등학교 졸업 ^c	89	3.51	.707			
	대학교 졸업 이상 ^d	68	3.47	.623			
경제 활동	유 ^a	120	3.45	.679	1.359	.175	-
	무 ^b	145	3.34	.665			
경제 수준	상 ^a	64	3.45	.711	5.797**	.003	a>c b>c
	중 ^b	133	3.48	.692			
	하 ^c	68	3.16	.536			
건강 상태	아주 좋다 ^a	17	3.88	.849	5.673***	.000	a>c a>d b>d
	좋다 ^b	75	3.56	.691			
	보통이다 ^c	131	3.31	.618			
	좋지 못하다 ^d	39	3.15	.587			
	아주 좋지 못하다 ^e	3	3.11	.192			
타 기관 이용	평생학습관 ^a	29	3.41	.595	.988	.415	-
	행정복지센터 ^b	36	3.27	.680			
	경로당 ^c	79	3.36	.690			
	노인대학 ^d	24	3.61	.700			
	기타 ^e	97	3.40	.670			

* $p < .05$, ** $p < .01$, *** $p < .001$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전체) 차이 분석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차이 결과는 <표 5-18>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이 3.45점으로 여자의 평균 3.41점 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60~64세가 3.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5~69세 3.48점, 70~74세 3.36점, 75세 이상 3.35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3.4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 3.43점, 초등학교 졸업 이하 3.41점, 중학교 졸업 3.33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활동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는 경제활동하는 노인의 평균이 3.49점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평균 3.37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076, p<05$). 경제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2.395, p<001$), 사후검증 결과 ‘상’의 평균이 3.61점으로 ‘중’의 평균 3.44점, ‘하’의 평균 3.22점보다 높았고, ‘중’의 평균이 3.44점으로 ‘하’의 평균 3.22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7.975, p<001$), 사후검증 결과 ‘아주 좋다’의 평균이 3.87점으로 ‘보통이다’의 평균 3.36점, ‘좋지 못하다’의 평균 3.23점 보다 높았고, ‘좋다’의 평균이 3.54점으로 ‘좋지 못하다’의 평균 3.2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외 이용하는 타 기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대학이 3.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생학습관 3.47점, 기타 3.40점, 경로당 3.39점, 행정복지센터 3.38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5-1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N=265)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 (SD)	t/F	p	사후검정 (Scheffe)
성별	남자	96	3.45	.476	.770	.442	-
	여자	169	3.41	.467			
연령대	60~64세 ^a	30	3.51	.492	1.902	.130	-
	65~69세 ^b	105	3.48	.507			
	70~74세 ^c	80	3.36	.440			
	75세 이상 ^d	50	3.35	.406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a	45	3.41	.495	1.595	.191	-
	중학교 졸업 ^b	63	3.33	.372			
	고등학교 졸업 ^c	89	3.49	.514			
	대학교 졸업 이상 ^d	68	3.43	.468			
경제 활동	유 ^a	120	3.49	.511	2.076*	.039	-
	무 ^b	145	3.37	.427			
경제 수준	상 ^a	64	3.61	.504	12.395***	.000	a>b, c b>c
	중 ^b	133	3.44	.472			
	하 ^c	68	3.22	.341			
건강 상태	아주 좋다 ^a	17	3.87	.591	7.975***	.000	a>c, d b>d
	좋다 ^b	75	3.54	.448			
	보통이다 ^c	131	3.36	.438			
	좋지 못하다 ^d	39	3.23	.389			
	아주 좋지 못하다 ^e	3	3.21	.610			
타 기관 이용	평생학습관 ^a	29	3.47	.442	1.314	.265	-
	행정복지센터 ^b	36	3.38	.463			
	경로당 ^c	79	3.39	.447			
	노인대학 ^d	24	3.62	.527			
	기타 ^e	97	3.40	.481			

* $p < .05$, ** $p < .01$, *** $p < .001$

4.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인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19>와 같다.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하위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삶의 만족도 하위요인이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전체)와 사회적 지지(전체)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r=.516, p<.001$)를 보였고,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전체)와 삶의 만족도(전체)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r=.375, p<.001$)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전체)와 삶의 만족도(전체)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r=.547, p<.001$)를 보였다.

〈표 5-19〉 상관관계 분석

(N=26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성별	1																			
2. 연령대	-.006	1																		
3. 학력	.236**	-.346**	1																	
4. 경제활동	.087	.101	-.070	1																
5. 경제수준	-.006	-.008	.340**	-.142	1															
6. 건강상태	-.002	-.301**	.371**	-.046	.410**	1														
복지관이 이용만족도	7. 서비스환경	.006	-.016	-.022	.174**	.127*	.039	1												
	8. 서비스내용	.089	.076	-.057	.290**	.028	.029	.663**	1											
	9. 대응성	.078	.081	-.037	.260**	.074	.031	.663**	.865**	1										
	10. 전체	.066	.066	-.043	.271**	.083	.042	.840**	.933**	.943**	1									
사회적지지	11. 정서적	.005	-.041	-.003	.146*	.161**	.190**	.468**	.576**	.571**	.536**	1								
	12. 정보적	.130*	-.141*	-.102	0.026	.338**	.280**	.197**	.182*	.145*	.189*	.391**	1							
	13. 도구적	.042	-.032	-.013	.190*	.244**	.182**	.447**	.515**	.486**	.532**	.652**	.537**	1						
	14. 사회활동	.124*	-.103	-.037	.084	.293**	.228**	.280**	.355**	.367**	.371**	.541**	.613**	.654**	1					
삶의만족도	15. 전체	.090	-.033	-.037	.144*	.313**	.235**	.423**	.438**	.476**	.516**	.781**	.786**	.883**	.823**	1				
	16. 자이존중	.064	-.018	-.008	.238**	.147*	.214**	.242**	.352**	.367**	.353**	.333**	.102*	.314**	.335**	.331**	1			
	17. 자이성취	.013	-.106	-.006	.031	.371**	.270**	.230**	.238**	.292**	.336**	.453**	.379**	.502**	.471**	.547**	.391**	1		
	18. 노화태도	.025	-.125*	-.002	.085	.206**	.213**	.257**	.302**	.239**	.239**	.331**	.336**	.400**	.403**	.501**	.371**	.601**	1	
	19. 현실만족	.048	-.041	.157*	.083	.139*	.276**	.140	.153	.150	.162*	.206**	.213**	.220**	.261**	.209**	.619**	.287**	.330**	1
	20. 전체	.047	-.000	.038	.129*	.293**	.317**	.300**	.302**	.349**	.375**	.444**	.330**	.400**	.482**	.547**	.738**	.732**	.801**	.709**

* $p < .05$, ** $p < .01$, *** $p < .001$

1) 더미성별: 남=1, 여=0, 2) 더미경제활동: 유=1, 무=0

5. 연구가설 검증

1)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20>과 같다. 먼저, 회귀모형이 $F(9, 255)=10.782$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25%, VIF(공선성) 지수는 10 이하로 확인되어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VIF=1.118\sim 4.388$).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에서 경제 수준($\beta=.220$ $p<.001$)과 건강상태($\beta=.241$, $p<.001$)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서비스 환경, 서비스 내용, 대응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5-20>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N=265)

구분	종속변인: 삶의 만족도					
	B	SE	β	t	p	
(상수)	2.220	.446		4.979***	.000	
일반적 특성	성별	.047	.055	.048	.851	.395
	연령	-.007	.005	-.076	-1.297	.196
	학력	-.056	.029	-.123	-1.910	.057
	경제활동	.067	.054	.071	1.253	.211
	경제수준	.146	.041	.220	3.556***	.000
건강상태	.138	.036	.241	3.858***	.000	
이용만족도	서비스환경	.031	.046	.051	.685	.494
	서비스 내용	.164	.085	.214	1.918	.056
	대응성	.067	.086	.085	.779	.437

$F(9, 255)=10.782^{***}$
 $R^2=.276$
 Adj. $R^2=.250$
 $1.118 \leq VIF \leq 4.388$

* $p<.05$, ** $p<.01$, *** $p<.001$

1)더미성별: 남=1, 여=0, 2)더미경제활동: 유=1, 무=0

2)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21> 과 같다.

먼저, 회귀모형이 $F(9, 255)=18.067(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36.8%, VIF(공선성) 지수는 10 이하로 확인되어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VIF=1.118~4.388).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에서 학력($\beta=-.144$, $p<.05$)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경제 수준($\beta=.262$, $p<.001$)과 건강상태($\beta=.165$, $p<.01$)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의 서비스 내용($\beta=.307$, $p<.01$)이 사회적 지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서비스 내용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5-21>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N=265)

구분	종속변인: 사회적지지					
	B	SE	β	t	p	
(상수)	2.149	.448		4.796***	.000	
일반적 특성	성별	.094	.055	.088	1.706	.089
	연령	-.010	.005	-.102	-1.882	.061
	학력	-.072	.029	-.144	-2.440*	.015
	경제활동	.046	.054	.045	.859	.391
	경제수준	.191	.041	.262	4.618***	.000
	건강상태	.103	.036	.165	2.877**	.004
이용만족도	서비스 환경	.066	.046	.098	1.435	.152
	서비스 내용	.257	.086	.307	2.993**	.003
	대응성	.090	.086	.106	1.049	.295

$F(9, 255)=18.067^{***}$
 $R^2=.389$
Adj. $R^2=.368$
 $1.118 \leq VIF \leq 4.388$

* $p<.05$, ** $p<.01$, *** $p<.001$

1)더미성별: 남=1, 여=0, 2)더미경제활동: 유=1, 무=0

3) 사회적 지지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22>와 같다. 먼저, 회귀모형이 $F(10, 254)=14.131(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33.2%, VIF(공선성) 지수는 10 이하로 확인되어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VIF=1.160\sim 2.521$).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에서 경제 수준($\beta=.123, p<.05$)과 건강상태($\beta=.178, p<.01$)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정서적 지지($\beta=.147, p<.05$), 도구적 지지($\beta=.206, p<.05$), 사회활동 지지($\beta=.181, p<.05$)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도구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활동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5-22> 사회적 지지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N=265)

구분	종속변인: 삶의 만족도					
	B	SE	β	t	p	
(상수)	1.663	.434		3.829***	.000	
일반적 특성	성별	.027	.053	.027	.505	.614
	연령	-.003	.005	-.032	-.576	.565
	학력	-.030	.028	-.067	-1.090	.277
	경제활동	.069	.050	.074	1.391	.165
	경제수준	.082	.040	.123	2.028*	.044
	건강상태	.102	.034	.178	2.975**	.003
사회적 지지	정서적지지	.116	.054	.147	2.147*	.033
	정보적지지	.000	.049	.000	-.005	.996
	도구적지지	.167	.065	.206	2.573*	.011
	사회활동지지	.121	.050	.181	2.422*	.016

$F(10, 254)=14.131^{***}$
 $R^2=.357$
Adj. $R^2=.332$
 $1.160 \leq VIF \leq 2.521$

* $p<.05$, ** $p<.01$, *** $p<.001$

1)더미성별: 남=1, 여=0, 2)더미경제활동: 유=1, 무=0

6. 매개효과 검증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 접근법에 의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먼저,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매개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과정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어야 하며, 동시에 매개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해야 한다.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감소하여도 여전히 유의할 경우에는 부분 매개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을 경우에는 완전 매개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매개 변인으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2단계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노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 변인으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노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5-23>과 같다.

<표 5-23>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F(7, 257)=22.901(p<.001)$ 수준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36.7%, VIF(공선성) 지수는 10 이하로 확인되어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VIF=1.110\sim 1.459$). 구체적으로 1단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에서는 학력($\beta=-.146, p<.05$)이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경제수준($\beta=.253, p<.001$)과 건강상태($\beta=.169, p<.01$)가 사회적 지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또한,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는 사회적 지지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467, p<.001$).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 2단계에서는 $F(7, 257)=13.757(p<.001)$ 수준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25.3%, VIF(공선성) 지수는 10 이하로 확인되어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VIF=1.110\sim 1.459$). 구체적으로 2단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에서 경제수준($\beta=.212, p<.01$)과 건강상태($\beta=.244, p<.001$)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으며,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322, p<.001$). 이는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3단계에서는 $F(8, 256)=17.970(p<.001)$ 수준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34%, VIF(공선성) 지수는 10 이하로 확인되어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VIF=1.124\sim 1.624$). 구체적으로 3단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에서는 건강상태($\beta=.180, p<.01$)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beta=.146, p<.05$)와 사회적 지지($\beta=.376, p<.001$)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어도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beta=.146, p<.05$)는 2단계에서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beta=.322, p<.001$) 보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매개 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었을 때 복지관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하여 사회적 지지가 복지관 이용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23〉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의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N=265)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매개변인: 사회적지지					종속변인: 삶의 만족도					종속변인: 삶의 만족도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상수)	2.153	.448		4.804***	.000	2.221	.445		4.991***	.000	1.481	.437		3.392**	.001	
일반적특성	성별	.100	.055	.093	1.808	.072	.051	.055	.052	.934	.351	.017	.052	.017	.326	.744
	연령	-.010	.005	-.099	-1.830	.068	-.006	.005	-.073	-1.242	.215	-.003	.005	-.036	-.644	.520
	학력	-.072	.029	-.146	-2.464*	.014	-.056	.029	-.124	-1.924	.055	-.031	.028	-.069	-1.126	.261
	경제활동	.054	.054	.053	1.011	.313	.073	.053	.077	1.369	.172	.054	.050	.058	1.082	.280
	경제수준	.184	.041	.253	4.485***	.000	.141	.041	.212	3.465**	.001	.078	.040	.117	1.960	.051
	건강상태	.106	.036	.169	2.945**	.004	.139	.036	.244	3.916***	.000	.103	.034	.180	3.031**	.003
복지관이용만족도	.408	.045	.467	9.047***	.000	.257	.045	.322	5.739***	.000	.117	.048	.146	2.418*	.016	
사회적지지											.343	.058	.376	5.899***	.000	
F(7, 257)=22.901***					F(7, 257)=13.757***					F(8, 256)=17.970***						
$R^2=.384$					$R^2=.273$					$R^2=.360$						
Adj. $R^2=.367$					Adj. $R^2=.253$					Adj. $R^2=.340$						
1.110 ≤ VIF ≤ 1.459					1.110 ≤ VIF ≤ 1.459					1.124 ≤ VIF ≤ 1.624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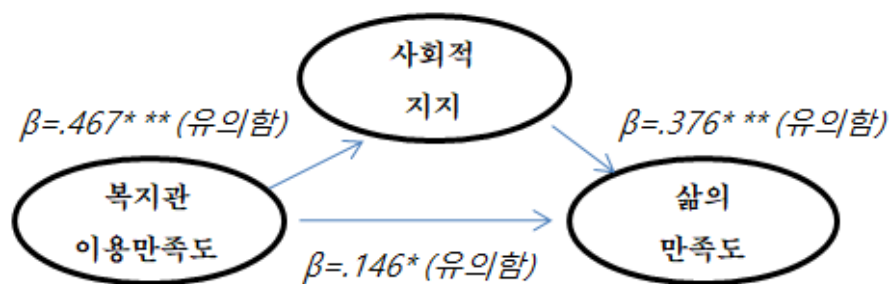
1)더미성별: 남=1, 여=0, 2)더미경제활동: 유=1, 무=0

지금까지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접근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복지관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지지가 부분 매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 변인으로서 간접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를 통해 산출된 z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그 결과는 <표 5-24> 와 같다. <표 5-24>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z값이 4.953($p=.000$)으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의 부분 매개효과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5-24>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Sobel test

	<i>B</i>	<i>SE</i>	<i>z</i>	<i>p</i>
복지관이용만족도(X)→사회적지지(M)	.408	.045	4.953	.000
사회적지지(M)→삶의만족도(Y)	.343	.058		



[그림 3-1] 매개효과

V. 결론

1. 연구의 요약

현대사회는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로 인한 노인부양 및 보호 문제, 경제활동 및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의 활력 저하, 의료 및 연금 등 사회보장 관련 비용 증대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간적, 문화적 여유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양지은, 2016).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의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는 노인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부각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고,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년기의 따르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상실, 소외감 등이 또래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의존할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의 안정적 생활을 통한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효능감, 행복감 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자기효능감도 높고, 행복감이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김양이 외, 2017). 특히 노년학 분야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선행연구들은 활발한 여가 활동을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다. 오늘날 노인들은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생활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여가생활의 질을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노후 생활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향숙, 2015).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으로 노인복지관을 통하여,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지원을 통해, 노인들에 삶의 만족을 긍정적인 영향으로 향상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 만족도와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매개적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인구 사회학적 측면에서 차이분석을 하기 위해 인구 사회학적 변수를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경제활동, 경제 수준, 건강상태로 정의하였다. 성별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이 4.03점으로 여자의 평균 3.95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차이는 75세 이상이 4.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5~69세 4.00점, 60~64세 3.94점, 70~74세 3.91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089, p<05$).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4.17점으로 중학교 졸업 3.83점보다 평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4.575, p<001$), 경제활동하는 노인의 평균 4.15점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평균 3.8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상’의 평균 4.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의 평균 3.97, ‘중’의 평균 3.91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상태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4.487, p<01$), 사후검증 결과, ‘아주 좋다’의 평균이 4.39점으로 ‘보통이다’의 평균 3.9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하위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삶의 만족도 하위요인이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전체)와 사회적 지지(전체)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r=.516, p<.001$)를 보였고,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전체)와 삶의 만족도(전체)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r=.375, p<.001$)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전체)와 삶의 만족도(전체)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r=.547, p<.001$)를 보였다.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복

지관 이용만족도의 서비스 환경($\beta=.155$, $p<.05$)과 서비스 내용($\beta=.283$, $p<.05$)이 사회적 지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5.8%이었다. 이를 통해 서비스 환경과 내용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 변인인 정서적 지지($\beta=.161$, $p<.05$), 도구적 지지($\beta=.221$, $p<.01$), 사회활동 지지($\beta=.213$, $p<.01$)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9.7%이었다. 이를 통해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도구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활동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으며($\beta=.375$, $p<.001$), 설명력은 13.7%였다. 이는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 2단계에서는 복지관 이용만족도는 사회적 지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으며($\beta=.516$, $p<.001$), 설명력은 26.3%였다. 이는 노인복지관의 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3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beta=.481$, $p<.001$). 그리고 3단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어도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beta=.127$, $p<.05$)는 1단계에서 복지관 이용만족도($\beta=.375$, $p<.001$) 보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매개 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었을 때 복지관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하여 사회적 지지가 복지관 이용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연구의 제언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미치는 영향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지원방안이 되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 대한 측정도구의 개발을 제언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 대한 방안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6월부터 2년간 노인 분야 4개 지자체, 장애인 분야 2개 지자체, 정신질환자 1개의 지자체 총 8개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지역사회통합 돌봄은 2026년 지역 내 보편적 제공을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 검증하여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 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보건복지부, 2019).

앞으로의 노인 세대는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 노인복지관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특성 있는 서비스 제공과,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스스로 가정이나, 지역 내에서의 의존적 존재로부터 탈피하여 추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역할 부여와 함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사회 지지망 형성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로서 노인의 삶의 성공적인 삶의 긍정적인 요소로 차지할 수 있다 하겠다. 노인의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한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심층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 연구의 함의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특정 한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로 국한되어있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른 지역 간의 차이와 설명력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범위를 전국단위로 하여, 대상자의 차이와 심도 있는 연구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지 향상을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구를 위한 질적으로 접근해야 할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복지관 이용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분석에 따른 진행 과정이나 변화를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경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인과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종단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강기은. 2014.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봉주. 2013. “노인복지관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성재. 2019.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강영숙·정자영. 2020.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259-268.
- 강은경. 2013. “노인의 감정조절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
지의 조절효과 연구”.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윤길. 2010.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댄스스포츠 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레크리에이션학회지』 16: 27-42.
- 국현정. 2018.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유형에 미치는 영향”. 공
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미경. 2017.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오균·허준수. 2010.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
학회지』 노인복지연구 학술지, 24: 7-30.
- 권중돈. 2010.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김계옥·김용민. 2016.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
구: 사회적지지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6: 37-52.
- 김병오. 2018. “노인복지 시설현황과 선교방안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전
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이·이연숙. 2017.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사회적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노인복지학회』 22: 217-238
- 김예주. 2019. “여성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네트
워크와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숙. 2013. “노년기 교육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임파워먼
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우신. 2013.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영등포지역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2002. “노인의 생활시간과 삶의 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희. 2013. “노인복지관의 집행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엽. 2010.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한국복지행정학회지』 34: 29-62.
- 김종경. 2012.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활동에 따른 삶의 만족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 2003.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호걸. 2016. “노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만족도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기민. 2002. 『현대노인교육론』 서울: 현학사.
- 다음어학사전. 2020.5.13. <https://100.daum.net/>
- 도용호. 2010. “노인의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용·윤정옥·주성택. 2011. “노인복지관 여가스포츠시설 이용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여가몰입, 사회적지지 및 주관적 안녕간의 인과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15: 95-109.
- 맹두열. 2011. “노인복지서비스 품질이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경희. 2006.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기. 2018.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여가 몰입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협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미. 2014.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참여여부와 사업유형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인수. 2005. “노인종합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여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

- 향”.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정민. 2014. “사회적 지지가 지체장애인의 장애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울과 낙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태룡. 1999. 『노인복지이론과 실제』 대구대학교 출판부.
- 배숙경. 2002.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이용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혜영. 2012.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 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 73-92.
- 법제처. 2020. 『노인복지법 제36조』 .
- 보건복지부. 2019. 『노인복건복지사업안내』 .
- 서정조. 2006. “제주도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화정. 2005.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사업 개입전략: 노인자살의 영향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섭아남. 2019. “사회적 지지가 중국 중학생 우수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덕순. 2006. “노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우울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자영. 2010. “사회적 지지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기영. 2019. “노인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한국콘텐츠학회』 2: 295-296.
- 송인옥. 2008. “사회적 지지가 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비교”.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재희. 2005. “노인복지관 이용실태와 만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한이. 2009. “노인종합복지관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의 참여 특성과 참여만족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장철. 2012.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정원. 2002. “부모의 음주가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선영. 2016. “사회적지지 및 회복탄력성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성문. 2016. “능동적 사회적지지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송자. 2004. “노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건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수상. 2007.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남 거창군 노인복지센터 서비스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희. 2019. “사회적 지지가 워킹 맘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위키백과. 2020. 5.21 『우리모두의 백과사전』 . <https://pedia.org/wiki/>
- 이국권. 2010. “노인종합복지관의 여가프로그램 참여경험, 만족도 및 제약요인에 관한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구·박인수·박지은. 2006. “노인종합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가유형에 따른 이용만족도, 고독감 및 성공적 노후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 133-153.
- 이선재. 2015. “노인의 평생교육참여와 삶의 질 간에 사회적지지가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용수. 2018. “한국인의 행복과 행복요인”. 『보건복지포럼』 20-31.
- 이윤정. 2012.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지식, 경험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07.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도시노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2003. “노인복지시설 이용과 노인의 삶의 질 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

- 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향숙. 2015.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여가활동 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협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2019.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독거여부의 조절효과: 남녀노인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형희. 2017. “노인의 여가프로그램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 관한 연구: 노인 종합복지관 참여 노인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18. “노인대학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명숙·박경숙. 201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보건사회연구』 32(2): 232-266.
- 장은희. 2017. “노인의 무망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및 사회적지지 요인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영숙. 2007. “노인여가교육 프로그램이 노인의 여가인식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영희. 2008.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한채. 2012. “노인복지시설 운영형태에 따른 조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위탁과 직영 종사자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제주연구원. 2017.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 조성희·김 옥·김정현·박현식. 2017. 『노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 조영주. 2015.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프로그램 품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 319-346.
- 조윤주. 2007. “생산적 활동이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중앙일보. 2019. “국민 5명중 1명 행복 취약층, OECD 행복순위 뒤에서 3등”
- 최갑현. 2015. “은퇴자의 여가문화 활동과 자기효능감·생활만족도간의 관계분석”.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성재·장인협. 2010.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최순옥. 2019. “노인복지관 여가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2: 89-100.
- 최영준. 2011.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 최우영. 2015.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질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숙. 2019.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전라북도지역을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민. 2009. “노인복지관 서비스 이용을 통한 노인 임파워먼트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9. 『고령자 통계』.
- 통계청. 2019. 『장래인구추계』.
- 하향자. 2018. “노인의 여가활동이 삶의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예명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015. 『노인복지법 개정(안)』.
- 한정란. 2015. 『노인교육론』 서울: 학지사.
- 한정화. 2010. “노년기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영주. 2016. “개인적 변인과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노인 삶의 만족도 차이와 평생교육의 방향”. 『교육문화연구』 24: 77-100.
- 홍경민. 2010. “노인의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의 관계”.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인애. 201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 대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tchley, Robert C. 2000.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Belmont, CA. Wadsworth.
- Breen, L. B. 1976. "Aging and the Field of Medicine" New York; Wiley.
- Cohen S. and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125.

- Diener, E.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 Havighurst, R. J. 1973. "Social roles, work, leisure and education. In C Eisdorfer et al". (Eds.), The psychology of adult development and ag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esler and Meleod. 1985.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in community samples" In S. Cohen and S.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 Murrell. 1992. "Protective function of resources related to life events, global stress and depression in order adults", our 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25 . 424-437, 1984.
- Parasuraman, A. Zeithaml, V. A. and Berry, L. 1988. "SERVQUAL: A Multiple-item Scal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Retailing.
- Sandler, IN, Miller, P. Short, J, and S. A. Wolchik. 1989. "Social support as a protective factor for children in stress. In D. Belle(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277-307. New York: Wiley.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3. "WHO QOL Study Protocol".

ABSTRACT

Satisfaction level of use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in Jeju

Impact on life satisfaction

- Focus 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

Kim, Doo Yo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o, Kwan 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effect of satisfaction level on the use of elderly welfare center on life satisfaction,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s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n 280 elderly people using the Elderly Welfare Center located in Seogwipo 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20 days from April 23 to May 12, 2020. Out of 280 copies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responding with unfaithfulness, 265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used for research analysis, except for 15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ith many missing value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Win 23.0 program, and the following analysis was perform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Looking at the average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according to the final educat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level between the use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economic activity and health status, an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lderly who are doing economic activity and the healthy elderly are showing a lot of satisfaction in the usag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was examined. As a result, the sub-factor of the satisfaction level for the elderly welfare center, the sub-factor of social support, and the life satisfaction sub-factor were correlated. The welfare satisfaction level (total) and social support (total) showed a moderate static correlation, and the elderly welfare center usage satisfaction (total) and life satisfaction (overall) showed a moderate static correlation. In addition, social support (overall) and life satisfaction (overall) showed a moderate static correlation. It can be seen that thi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ach variable.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on the satisfaction of life, and the resul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service environment and service content of the welfare center usage satisfaction were determined by social support. It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Through this,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the service environment and content,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In addition, emotional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which are sub-variants of social support,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this, the higher emotional support, the more tool support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higher, the higher the support for social activitie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life.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elderly's welfare center us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which means that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elderly's welfare center is higher,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of life. In the next two stages, the satisfaction level of welfare center use was positively affected by social support, which means that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In the third stage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social suppor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even though social support was introduced in the third stage, the satisfaction level for the elderly welfare center was less than the welfare center usage satisfaction level in the first stage. Therefore, when the social support, the mediation variable, is applied, the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of life in the welfare center is still significant, so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social support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of the welfare center and the satisfaction of life.

In conclusion, while using the welfare center for the elderly, it is possible to propose the development of measuring tools for improving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s a support plan, and ways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by supporting the elderly to lead a successful old life. It can be practiced through continuous research.

key words : Seniors Welfare Center, Satisfaction level for elderly welfare center, Lif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부록】 설문지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두영 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료로서, 어르신들의 응답하신 의견
은 본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 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설문지 내용
과 결과는 통계법(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 : 제33,
34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오니, 각 질문에 정성껏 응답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설문지 작성에 귀한 시간 내어주시어 협조해 주심을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설문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4월

지도 교수 고 관 우

석사 과정 김 두 영 올림

I.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해당사항에 ✓ 표 하여 주십시오.

복지관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복지관은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부담이 없고,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복지관은 이용 시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복지관은 지역주민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복지관 업무처리에 대하여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복지관 담당자의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에 신뢰가 간다.	①	②	③	④	⑤
7. 복지관 업무처리 및 관련정보의 제공으로 필요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복지관의 직원은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9. 복지관은 이용자와 약속한 서비스 이행 시간을 반드시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10. 복지관은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복지관은 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사회적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해당사항에 표 하여 주십시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존경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를 늘 걱정해 주고 관심을 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려운 일이나 속사정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물건이나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아플 때 보살펴 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망설일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극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사회활동이나 모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여행, 등산을 함께 할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취미생활이나 오락을 같이 즐길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삶의 만족도의 대한 질문입니다.

* 해당사항에 표 하여 주십시오.

삶의 만족도의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보다 삶이 여유로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늙어가는 것은 그다지 나쁘지만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가 내 인생의 가장 쓸쓸한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젊었을 때와 다름없이 지금도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인생은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6. 현재가 내 인생의 황금기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앞으로 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나에게 생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외모가 비교적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	①	②	③	④	⑤
10. 요즘 나는 매사가 따분하고 지루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늙어가고 쓸모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기대했던 인생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앞으로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종종 다른 사람에 비해 내 자신이 하찮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IV. 마지막으로 어르신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해당사항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어르신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어르신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3. 어르신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무학 ② 초등 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이상
4. 어르신의 동거가족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중복 체크 가능)	① 독거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손자 ⑤ 기타 ()
5.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근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 노인일자리 ② 공공근로 ③ 자영업 ④ 없다 ⑤ 기타 ()
6. 어르신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7.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아주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좋지 못하다 ⑤ 아주 좋지 못하다
8. 복지관 이외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곳이 있으십니까?	① 평생학습관 ② 행정복지센터 ③ 경로당 ④ 노인대학 ⑤ 기타 ()

장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